금주의 기도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해 헛것을 쫓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며 이를 위해 모든 것 받쳐 충성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시편 25편 5절)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10월 24일 (토) 제 1556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무슬림극단세력, 국제종교자유 침해 주 세력!

## CT, 미국무성 '2015 국제자유보고서' 내용 요약 보도

지난 2년 동안 크리스천들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무슬림 세계에서 증가됐다. 7명의 크리스천들이 벵가지 해변가에서 처형당했고, 학교에서 등하교하는 크리스천 여학생 165명이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세력에 의해서 피랍됐고, 21명의 콥틱 크리스천들이 지중해 근처에서 참수 당했다.

미 국무성은 지난 14일, 발표한 최신 국제종교자유보고서(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IRF)를 통해, 지구촌 소수 크리스천 커뮤니티들이나 다른 종교 소수그룹들에 가장 큰 위협이 바로 중동, 사하라 사막 남부 그리고 아시아에서 초국가적 테러리즘이라고 밝혔다.

"초국가적인 테러리스트들은 반란과 국지적 테러 활동들을 통해 인간의 권리를 학대하고 종교적 자유 존중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고 IRF 보고서는 결론짓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인권 학대와 종교적 자유 침해에 대해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국경을 초월하여 무장 봉기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을 "종교적 자유나 신념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이미 2015년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을 정도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는 국무성에서 밝힌 보고서를 요약, 보도했다(It's Official: Terrorists Are Now the Persecuted Church's Greatest Threat: State Department releases latest report on religious freedom in nearly 200 countries).

지난 14일 기자 회견장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테러리스트들은 "종교적 관용과 실천을 가로 막는 방해자인 동시에 가장 심각한 박해자들"이라고 정의하고, "가장 유력하고 그리고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국제적 테러리스트들이 세계 전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바로 IS, 알카에다, 알-사바브, 보코하람으로 전례가 없었던 폭력과 살상을 일삼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최근 들어 종교적 자유를 감시하고 지키는 많은 단체들이 예전과는 다른 형태의 박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국가나 사회적 적대 세력들에 의한 크리스천들에 의한 핍박과 살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퓨리서치센터는 2012년에 발견한 사실, 지구촌에서 4명 중 3명이 거의 준종교 시스템으로 진화해가는 사회 적대 세력들에 의한 위협아래 살고 있고, 64%의 사람들은 종교를 엄중하게 제한하는 정부의 감시 체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무성 보고애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결국 이슬람국가 주도의 차별과 조직화된 테러단체들에 의한 종교적 박해가 향후 국제종교 자유를 잠식하는 2개의 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국무성은 예측하고 있다. 또 불경죄에 대한 법률 강화와 종교적 자유를 지키려다 투옥된 사람들의 양심마저도 위해하는 행위들이, 앞으로 더욱 불거지게 될 것이다.

무슬림 극단세력의 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된 세력이 되고 있다. 사진은 이슬람옹호 시위모습.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 2014년부터, IS의 영역 확장과 동시에, 더욱 불안정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고향을 등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쿠르디시 도시들로, 강간이나 노예 그리고 살해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향하고 있다.

"IS는 수만 명이나 되는 크리스천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있고, 대량 살상을 벌이며, 그리고 납치해 노예로 팔고, 강간해 수천이나 되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강제로 개종시키고 있다. 이는 바로 IS가 가지고 있는 이슬람극단종교 이데올로기에 따른 수단이다"라고 IRF보고서는 해석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 IS가 일으킨 전쟁이 주는 후 폭풍 시리아 난민 십대소녀들 강제결혼

## 허핑턴포스트, 고군분투 인도주의적 단체 보도

13세의 누르는 부모가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 시집보낸 소녀다. 유니세프에 의하면 누르의 가족은 4년 전 시리아를 떠났고, 지금 누르는 9개월 전에 결혼한 27세 남편과 함께 레바논의 베카 밸리에 살고 있다. 이 둘은 결혼식 전에는 만난 적이 없다. "전쟁이 아니었다면 절대 이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시키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딸을 키울 수가 없다." 누르의 부모가 유니세프에 한 말이다.

레바논은 시리아 난민 110만 명을 받아들여, 인구대비 난민 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다고 CNN은 보도했다. 이런 가족들은 전쟁 지역에서는 도망쳤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 불가능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 생긴다. 그러한 결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십대 소녀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성에게 결혼을 시키는 것이다. 물론 '궁여지책'이자 본의 아닌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꽃도 피워보자 못한 시리아 소녀들이 아파하고 있다.

'허핑턴포스트'는 시리아 난민 소녀들 중 18세 미만에 강제로 조혼하는 비율이 28%나 되며, 이러한 아픔과 후 폭풍을 치유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도주의적 단체들을 보도한다(24% Of Syrian Refugee Girls In Lebanon Forced To Marry Before 18. Here's Who's Helping).

### 임신/출산 합병증 15-19세 소녀 사망 주요 원인
### 종교단체와 협력, 안전 모바일프로그램 등 운영

17세의 시리아 난민 사미라가 베카 밸리 로우다의 텐트 피신처에서 7개월 된 아들을 돌보고 있다. 고충을 겪고 있는 이런 가족들에게 아동 결혼은 '빠른 해결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위험이 뒤따른다.

WHO에 의하면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소녀들은 나이 들어 결혼하는 여성들보다 가까운 파트너에 의한 폭력과 성적 학대를 겪을 가능성이 더 크다.

임신과 출산에 따른 합병증은 15세와 19세 사이 소녀들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일부 난민들로선 자신들이 처했던 더 무서운 시나리오에 비하면 이런 위험은 무릅쓸 만한 정도의 것이다.

유니세프에 의하면 14세의 사미라는 IS 무장 대원들에게 납치당했으나, 부모의 도움으로 레바논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1년 반 뒤 그녀는 결혼했고, 지금은 베카 밸리의 텐트 피신처에서 남편과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동 결혼을 막는 것으로 입증된 제도 중 하나가 레바논에는 드물다는 사실이다.

비영리단체인 "Girls Not Brides(소녀이지 신부가 아니다)"에 의하면 중등 교육을 받는 소녀들은 교육을 덜 받는 아동들에 비해 결혼할 확률이 최고 6배까지 더 낮다고 한다.

〈3면으로 계속〉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Online) 기독교상담학과
1. 학사: 성서학(BABS), 기독교상담학(BACC)
2. 석사: 목회학(M.Div), 신학(MAT), 기독교상담학(MACC)
3. 박사: 목회학(D.Min)
4. 세계 모든 곳에서 통신과 온라인으로 학위 취득 가능
5. ATS 인가 학위로 미국 주류 기독교 대학과 학점 인정 및 편입학
6. 연방정부 학비 지원, 선교사 장학금, 목회자 장학금, 부부 장학금
미국 대학교 인준기관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TRACS 정회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www.wmu.edu /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똑똑한 아이 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윤병이 목사

14면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엄예선 박사



# 피종진 목사 초청 11월 성회 일정

3(화) 저녁 필리핀(Philippines) San Lsidro 농구장 한비 연합대성회
4(수) 오전 필리핀(Philippines) Bright B.I.C. Christian School 한인선교사 필리핀목회자세미나
4(수) 저녁 필리핀(Philippines) Bright B.I.C. Christian School 운동장 원주민 전도대중성회
5(목) 오전 필리핀(Philippines) Bright B.I.C. Christian School 원주민목회자세미나
5(목) 저녁 필리핀(Philippines) Bright B.I.C. Christian School 원주민목회자세미나
주최: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이종인 목사, 대표회장 정상은 목사) ☎ 010-8850-1793
7(토) 오후 대전 DWM 다드림국제선교예술제(이사장 피종진 목사, 원장 전정순 목사)
8(주)~11(수) 서울 서서울중앙교회(한영훈 목사) ☎(02)2602-5112
9(월) 오후 부천 소양교회(정효신 목사) ☎ 010-9600-1617
9(월) 오후 안산 칼빈성서신학(학장 백재현 목사) ☎ 010-7404-8541
제194차 해외성회(194th Overseas Assembly)
13(금) 오후 미국(U.S.A) LA 세계아가페선교교회(김요한 목사) ☎(213)368-7991
14(토) 오후 미국(U.S.A) LA 은혜교회(한기홍 목사) ☎(714)446-6200
주최: 미국 헤럴드사(신문, 라디오, CHTV방송) 창립 38주년기념 CHTV개국 축하 콘서트 준비위원회(위원장 정요한 목사)
15(주) 오전 미국(U.S.A) LA 주안에교회(최 혁 목사) ☎(818)363-5887
17(화)~18(수) 서울 온누리선교교회(곽병구 목사) ☎(02)2245-0564
19(목)~21(토) 미국(U.S.A) 펜실베니아 Global Mission College(Joseph Kim) ☎(267)575-5617
22(주) 오전 미국(U.S.A) 뉴욕 주찬양교회(김희복 목사) ☎(646)270-9037
23(월) 오전 미국(U.S.A) 뉴욕 campus(워싱턴 Nayot신학대학대학원[학장 김희복 박사])
23(월)~25(수) 미국(U.S.A) 뉴욕 할렐루야교회(한기술 목사) ☎(718)225-0303
24(화) 오전 미국(U.S.A) 뉴저지 campus(워싱턴 Nayot신학대학대학원[학장 김희복 박사])
27(금)~29(주) 미국(U.S.A) 아틀란타 예수사랑선교교회(문길원 목사)
30(월) 오전 미국(U.S.A) 해외합동총회 세계여선교회연합총회(준비위원장 김영언 목사)

피종진 목사 TV, 인터넷, Radio 방송설교
■ CTS 기독교TV방송 - 매주 토요일 오후 4:30
■ CBS 위성TV방송 - 매주 일요일 오후 5:30
■ GoodTV방송 -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 기독교인터넷방송 - www.c3tv.com
■ 인터넷복음방송 - www.Jesus119.net
■ CBS인터넷방송 - www.cbs.co.kr
■ Jesus-tv인터넷방송 - www.jesus-tv.net
■ 기독TV인터넷방송 - www.kidoktv.net
■ 국민일보 쿠키미디어방송 - www.kukinews.com
■ 하야인터넷방송 - www.ichn.or.kr
■ 미주크리스천헤럴드방송 - www.christianherald.com
■ 월드미션뉴스인터넷방송 - www.wgnews.org
■ 크리스천헤럴드방송(LA) - 매주 화요일 밤 11:30
■ 미국라디오한국선교방송(워싱톤주) - 매일 오전 5:20
■ 북가주복음방송(캘리포니아)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워싱톤기독교복음방송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HP : 010-5255-7777

## 시 론

# 반 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를 경계하라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최근 한국에서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강행으로 인해 여야 정치권은 심각한 충돌을 하고 있으며 국론도 양분되어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야당 대표는 '역사 구데타'라고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돌입했고, 여당 대표는 '역사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규정하며 국정화 작업을 옹호하고 나섰다. 한국 역사를 전공하는 학자들, 전공대학 교수들은 물론, 한국 역사 교과목을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는 전국 초·중·고교 역사교사들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정권의 의도에 따른 획일화 시도라고 성토하며 집필·제작을 거부하는 선언을 잇달아 하고 있다.

"대통령님 우리는 올바른 역사를 배우고 싶어요.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어찌 하나일 수 있나요?" 광화문 사거리에서 1인 시위에 교복입고 나선 어느 여고 2학년 학생이 든 피켓 내용이다. 간단한 글 같지만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 불후의 명작, '역사란 무엇인가?'를 쓴 E.H. Carr는 과학적 역사 연구로 유명한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인 랑케의 "역사란 결국 객관적 사실이다"라는 정의를 비판하면서, "역사적 사실은 역사가가 사실에 생기를 불어넣을 경우에만 기술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즉, 역사라는 것은 역사가들이 당시 사실(사건)을 그 시대와 상황에 비추어 역사가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하여 재구성한 것이기에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의미와 해석에는 다양한 스펙트럼(spectrum)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을 충돌이 아닌 조화의 관점에서 보면 7원색의 무지개 빛깔처럼 훨씬 더 아름다우며 실체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E.H. Carr는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국정화 시도는 곧 정권의 구미에 맞는 획일화 작업을 의미하며 이러한 역사 획일화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억제하는 전체주의나 전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반 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에 가까운 역사 퇴행에 불과한 정치행위일 뿐이다.

1963년 풀리처 상 수상작인 '미국적 삶의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 in American Life)를 쓴 리처드 호프스타터(Richard Hofstadter)는 반지성주의를 "지적인 삶과 지성인에 대한 분노"라고 정의하면서 미국의 물질만능주의적, 실용주의적 삶이 점점 다양한 사상과 정신세계의 깊이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적 활동을 백안시, 공격적으로 적대시하며 외면하고 억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반지성주의적 정치행위는 구체적으로 소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나타나는 동성애 합법화 정책이나. 불법체류자 추방정책이나, 반이민정책으로 구체화 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일본의 아베 정권하에 주도되고 있는 과거 일본주도의 침략전쟁에 대한 미화나, 위안부들에 대한 역사왜곡, 일본 자위대의 제국주의적 환원정책 역시, 반지성주의의 산물들임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신앙의 세계는 어떠한가? 근현대 복음주의는 오랫동안 반지성주의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어왔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반지성주의란 기독교 신앙이 일명 '값싼 복음'(Cheap Gospel)으로 획일화하여 전락해 버리는 경우를 말한다. 전도한답시고,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고 한다든지, "믿어야 알게 된다"고 하면서 강요된 믿음을 설교한다.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saving faith)은 영적 속성상 인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에(엡2:8),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은 가히 억지에 가까운 반지성주의이다. 오히려 편안한 구도자의 마음으로 말씀(text)과 당시의 문화, 역사, 언어적 배경(cultural, historical, linguistic context)들을 살펴가면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의 뜻에 대해 차근차근 배워 나가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믿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지성적 상호작용으로 주어지는 '믿음'이란 신비로운 은혜의 선물을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으로 대체하는 반지성주의를 경계해야만 한다. "무조건 소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부적처럼 붙들고 기도하는 기복주의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언제라도 버리게 된다.

한때 '40일 금식기도', '100일 기도', '서원 기도', 일명 '특새'(특별새벽기도)' 등이 유행병처럼 번져나갔다. 신년이 되면 어김없는 단골메뉴처럼 '신년대축복성회'가 시작된다. 그러다가,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식의 기도 무용론이 심각하게 스며들며, 환란을 당하면 어김없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감각주의적 무신론으로 빠지게 된다. 반지성적 인간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언제라도 주님을 은30에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으며, 진리를 가까이 두고서도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막15:5)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빌라도의 이중적 위험성에 사로잡히게 됨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3면으로 계속〉

# 똑똑한 아이 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 WSJ, 미 교육현장에서 똑똑한 아이들이 오히려 뒤쳐지는 이유 소개와 대안 제시

미국 교육의 큰 문제는 재능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밀어붙이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것이다. 미국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외국 학생들보다 뒤쳐진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2012년 PISA 시험을 치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서 미국은 읽기에서 17위, 과학에서 20위, 수학에서 27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미국 어린이들, 특히 가난하거나 소수자인 아이들이 이런 측정 기준에서 최고 수준까지 오르는 경우가 얼마나 적은지는 그보다 덜 알려져 있다. PISA 시험은 학생의 수학 능력을 6개 단계로 구분하며 15세 미국인 중 9%만이 상위 두 단계에 속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캐나다의 경우 16%, 독일은 17%, 싱가포르는 40%가 상위 두 단계에 속했다.

미국의 얼마 안되는 우수 학생 중에서는 8명 중 1명만이 사회경제적 지위의 최저 사분위수에 속했다. 캐나다는 4명 중 1명, 독일은 6명 중 1명, 싱가포르는 3명 중 1명이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하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준다(The Bright Students Left Behind: While everyone focuses on boosting the weakest students, America's smartest children are no longer being pushed to do their best).

무엇이 잘못됐을까? 낙제학생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과 그 선행 정책들 덕분에 미국 교육 정책은 수십 년간 취약 학생들이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한편, 이미 그 최소한도를 넘어선 아이들은 무시했다. '재능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불평하면 엘리트주의라며 비난했다. 평등을 도모한다는 오늘날의 정책들이 불우한 환경 출신의 가장 똑똑한 아이들에게 해가 된다는 것은 얼토당토않다.

우수 학생들은 스푸트니크 시대에 더 진지하게 여겨졌다.

## 문화, 가치관, 태도 매우 중요...장애아처럼 '영재특수교육' 주장

## 주정부들이 영재들의 학업성취도 추적하고 보고하도록 장려해야

1954년 미국영재학회(NAGC)가 설립됐고, 같은 해 공립학교의 흑백아동 분리교육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이 교육적 평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존 W. 가드너 카네기재단 회장(이후 보건교육복지부장관 역임)은 1961년 'Excellence: Can we be equal and excellent too?(우수함: 평등한 동시에 우수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대작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제시했다.

1983년에는 국가교육수월성위원회의 보고서 'A Nation at Risk(위험에 처한 국가)'가 발표돼 가난한 학교들이 국가적 취약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한때 누구에게도 도전받지 않았던 상업, 산업, 과학, 기술 혁신에서의 탁월함이 전 세계의 경쟁자들에게 추월당하고 있다." 5년 후 의회는 영재들에게 집중한 유일한 연방 프로그램을 통과시켰다. 이들을 위해 연간 900만 달러를 간헐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형편없는 시험 성적을 보면 아직도 미국 영재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에 도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더 좋은 결과를 낼까? 우리는 앞으로 나올 책 'Failing Our Brightest Kids: The Global Challenge of Educating High-Ability Students(가장 똑똑한 아이들은 어디에: 우수 학생 교육의 전 세계적 도전)'을 위해 아시아에서 4개국, 유럽에서 4개국, 영어권에서 3개국 등 총 11개국을 살펴봤다.

놀랍지 않게도 우리는 문화, 가치관,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한국, 일본, 대만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더 우수해지도록 압박하고 과외 교습비와 학원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이 비용이 너무 비싸지고, 밤늦게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면서 가정에서 자녀를 1명만 두는 경향이 생겼다. 이는 부지불식간에 이 국가들의 인구통계학적 위기에도 기여하고 있다.

핀란드는 다르다. 핀란드 교육은 평등과 포용의 대명사이며 교사들은 모든 아이들 고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도를 '차별화'해야 한다. 엘리트주의는 금기시되고 경쟁에는 눈살을 찌푸린다. 하지만 헬싱키에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보내려고 경쟁하는 특별한 초등학교들이 있다. 핀란드 고등학교들 대부분은 선발 입학 제도를 실시하며, 그중에는 현지 교육 전문가가 우리에게 "재능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라고 말한 학교들도 50여 개 포함된다.

독일과 스위스에서도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는 고등학교들(김나지움)은 대부분 선발제다. 소수의 학교들은 특출난 아이들을 위한 추가 강좌를 갖춘 집중 과정도 보유하고 있다.

호주의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는 싱가포르처럼 모든 3-4학년 학생들을 검사해 누가 학업적으로 유망한지 골라낸다. 뛰어난 학생들은 특별 학급이나 방과후 강화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다. 두 지역 모두 보스턴 라틴 스쿨이나 브롱스 과학고등학교와 비슷한 명문 공립고등학교들을 자랑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대만은 영재들이 장애학생들처럼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고 그들이 추가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번거로운 절차로 압박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위원회가 이들의 발전을 매년 검토해야 하고 이들은 일반적으로 당국이 지정해준 학교 이외의 학교로 전학갈 수 없다.

학업성취도의 천장과 바닥을 동시에 올리는 법에 대한 우리의 연구에서 미국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주는 모든 학생들을 검사하고 최고 성적을 올린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도전을 제시할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무슬림극단세력, 국제종교자유 침해 주 세력!

〈1면에서 계속〉

나이지리아에서는 보코하람이 "크리스천들만을 전적으로 골라서 박해하고 있다"고 동 보고서는 정확하게 맥을 짚어 준다. 현재 보코하람은 교회나 모스크 사원에서 예배 전후를 노려 무차별로 폭탄 테러나 기관단총 사격을 벌이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많은 나이지리아 크리스천들이 새로 선출된 무슬림 대통령이 보코하람을 격멸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슬림 테러단체들에 의한 폭력의 순환은 2015년에도 계속 돌고 있다. 지난 1월, IS는 시리아에서 크리스천 저널리스트를 참수했고, 4월 아프리카 동부 끄트머리에서는 소말리아 민병대(알-샤바브)가 케냐의 한 대학을 공격해 150명이나 되는 무고한 인명들이 살해됐다. 같은 달, IS는 이디오피아 크리스천 수십 명을 처형시켰다.

한편 IBF 보고서는 파키스탄에서 예언자 무하메드를 욕보였다고 해서 사형에 처해진 비비(Asia Bibi)와 크리스천 남성과 결혼한다는 이유만으로 100번의 채찍질과 사형에 처해질 여인(Meriam Ibrahim)을 강조한다. 그리고 중국 제이지앙 지역에서 교회 박해, 지역 해당 정부에 의한 400개 이상의 십자가 철거와 교회 건물 파괴, 그리고 이러한 부당성을 바로잡고자 나선 변호사 체포 사건도 보고한다.

그러나 밤이 깊으면 그만큼 새벽이 바로 오듯이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집트의 새로운 헌법은 인권 보호를 강화했고, 교회의 증축이나 건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강제로 정든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게 된 크리스천들이 새로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미 베일러 대학 역사학 교수 필립 젠킨스가 크리스처니티투데이 커버스토리(기독교, 고난 받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에 기고했듯이, 박해를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지는 아직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교회는 또 다시 자라나고 있다:

"이런 성장의 징표들이 있다고 해서 중동의 다른 여러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해 있는 끔찍한 상황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거두는 일은 잠시라도 허용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고, 강간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난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리고 서방 정부들은 그들을 위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개입의 방식만이 중요한 논의일 뿐이다-상황에 있다.

무장 개입은 실제로 가장 공격적인 지하드 운동을 타도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중동 밖에 있는 세계 교회는 중동 출신의 동료 신자들을, 그들의 조국에서든 아니면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지역에서든,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분명이 있다. 그렇지만 군사적 행동주의든 인도주의적 행동주의든 아무리 열정적인 행동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리아와 이라크의 교회들이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구가했던 번영의 상태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힘들 것이다.

중동 지역에서 멸절에 직면한 기독교를 말하는 것과, 중동에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토 본 비스마르크가 한 것으로 알려진 말이 떠오른다. "기독교는 보기만큼 절대로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러나 또한 보기만큼 그렇게 약하지도 않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강함과 약함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을 수 있다. 우리는 역사의 목표나 방향을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릴리전뉴스서비스는 IRF 보고서에서 결여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버마, 중국, 에리테라, 이란,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 IS가 일으킨 전쟁이 주는 후 폭풍 시리아 난민 십대소녀들 강제결혼

〈1면에서 계속〉

하지만 레바논에는 학령기 시리아 아동이 50만 명 정도 있는데, 그 중 5분의 1만이 정규 교육을 받는다고 로이터스는 보도했다.

아미나의 경험을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14세의 시리아 난민인 아미나는 2년 전에 본인 의사와 반대되는 결혼을 했고 지금은 아들을 둘 두고 있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공부를 계속했을 거라고, 유니세프에 말한다.

레바논은 궁지에 처한 엄청난 수의 난민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늘리려 노력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달에 올해 최고 20만 명의 시리아 난민 아동에게 무상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로 돌아가' 캠페인은 전세계 기부자들과 지원단체들에게서 9,4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로이터스는 보도했다.

소녀들에게 결혼 외에 어떤 다른 미래가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해주려 노력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결혼의 압력에 맞서 싸워 승리한 소녀들도 있다.

시리아에서 학생이었던 13세의 와드는 8개월 전에 알지 못하는 남자와 결혼하라고 아버지에게 강요당했다. 그녀는 이혼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하루에 6천 레바논 파운드(미화 약 4달러)를 받으며 들에서 일하고 있다.

유니세프 등의 단체들은 아동 결혼에 따른 위험을 지도자들에게 교육하고 소녀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찾으라고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인도주의 단체 유니세프는 종교 지도자들과 손을 잡고 아동 결혼 등 젠더에 기반한 폭력과 맞서 싸우고 있으며, 의료 종사자들에게 어린 아내들이 겪는 문제들을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

유니세프는 안전 모바일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 나이에 결혼할 위험에 처한 소녀들에게 심리사회적 지원 또한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소녀들이 연락할 수 있는 안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돕는다.

# 똑똑한 아이 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2면에서 계속〉

똑똑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빠르게 진도를 나가게 장려할 수도 있고, 더욱 혁신적인 방법으로는 모든 아이들이 자기만의 속도로 교과과정을 배우게 할 수도 있다.

왜 모든 11세 아이들이 5학년이어야 하는가? 기술이 이런 개별화를 용이하게 해주지만 이 변화는 현재 모든 아이들이 1년에 한 학년을 거쳐야 한다고 가정하는 학업 기준, 교과과정, 시험의 대대적 개혁과 기민한 교사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학교들은 방과후 활동과 사회 활동이 계속해서 연령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빨리 배우는 학생들이 학업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게 풀어주는 것은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이 된다.

의회가 낙제학생방지법의 재승인을 마무리 짓는다면 주정부들이 부진아들의 발전 상황뿐만 아니라 영재들의 학업 성취도도 추적하고 보고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오하이오주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 의원들은 또 교육부가 영재들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주정부들과 학군들은 우수 학생들을 위해 더 좋은 옵션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뉴욕시의 스타이븐센트 고등학교처럼 학업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입학을 시키는 학교들이 그 예다. 이 모델이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확대돼야 하며, 특히 영재들은 처음부터 이런 학업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똑똑한 아이들의 최대 잠재력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들이 내일의 발명가, 기업가, 예술가, 과학자를 우리보다 앞서 배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끝내 한탄하게 될 것이다.

## 시 론

〈2면에서 계속〉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이 가을에 몇 권의 책을 손에 쥐어보길 권한다. 존 파이퍼(John Piper)의 '생각하라'(Think)는 근, 현대 복음주의의 반지성주의를 반박하는 아주 유익한 책이다. 그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상과 성경신학에 근거하여 지성이 기독교 신앙의 필수 요소이고, 지성을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상대주의와 반 지성주의가 어떻게 비성경적임을 보여주며 그 위험성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다. 팀 켈러(Timothy J. Keller)의 '거짓 신들의 세상'(Counterfeit Gods)도 추천할 만한 책이다. John Stott는 그의 책,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영적 천박함이란 죄에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다!"고 선언한다.

이 가을에는 사도바울이 고백한대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고후10:5) 기독교 지성이 무르익어 성숙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기도한다.

##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 목회자와 건강(2)

목회자의 건강, 교회와 목회건강의 중심축(가)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식생활의 균형을 지키기가 어렵다. 필자의 경우 아침식사는 힘들고 피곤하고 입맛이 없다는 핑계로 건너뛰기 일쑤였고, 점심은 때 지난 후 먹거나 대용식일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저녁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전인 늦은 밤에 먹곤 했다. 깨어진 식생활의 리듬이 반복되다가 1999년 4월 위 절제수술을 받았다. 병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되었겠지만 불규칙한 식생활과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고 본다.

암 선고를 받는 순간 당사자에게 일어나는 심리기전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오진이야'라는 강한 부정의 단계, '왜 내가 암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의사와 병원이 밉고, 암 원인을 제공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환경과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 단계를 지나면 '살길이 없을까? 특효약은 없을까?' 약을 찾고 비법을 찾고 의사에게 매달리는 단계,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등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한다.

1999년 4월 2일 성금요일 아침, 필자를 만난 담당의사와의 대화이다.

"목사님이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입니까?" "예, 위암입니다. 빨리 입원하고 수술하셔야 합니다." "수술할 시간이 없는 데요. 2-3년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 취소하시고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필자에게도 '내가 왜?'라는 심리기전이 일어났다. 그러나 성금요일 예배 인도를 위해 교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감사해야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의 문을 열고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했다. 물론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다.

4월 4일 일체 내색하지 않은 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했다. 4월 5일 책상 정리며 서류들을 정리하고 남겨야 될 말들을 노트에 썼다. 그리고 4월 6일 입원했고, 그후 날짜를 정하고 수술대에 올랐다. 병상일지 맨 첫장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대문자로 썼다. 그리고 감사한 일들과 감사해야 할 일들을 써 내려갔다. 놀라운 것은 써 내려갈수록 감사의 조건들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어서 항암치료, 주사, 수혈 전혀 없이 입원한 지 보름 만에 퇴원했다. 퇴원하는 날 집도의인 김 박사가 필자에게 "목사님, 저는 기독교인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라며 건넨 인사말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담임목사가 입원하자 온 교회는 기도의 도가니로 변했다. 금식과 철야기도가 뒤를 이었고 필자의 지인들이 전 세계에서 기도의 지원사격을 보내기 시작했다. 뉴욕, 시카고, 시애틀, LA, 밴쿠버, 토론토, 파리, 동경, 오사카, 북경, 상해, 로마, 밀라노, 제네바, 취리히, 비엔나, 모스크바, 알마티 등 전 세계 각처에서 기도의 함포사격이 이어졌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꼭 가셔야 된다면 제가 대신 갈게요. 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가시면 안돼요. 하실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세요" 라는 충신교회 C장로의 기도 내용이 입소문으로 퍼지자 이 기도에 동참하는 기도 용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제가 대신 갈게요'라는 사람의 수가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수술 후 일주일 만에 걸어서 병원 문을 나설 수 있었다. 필자는 수를 셀 수 없는 사랑과 기도의 빚을 졌다. 지금도 생각하면 고맙고 감격스럽다.

수술 후 어느 날 K목사가 병실을 방문했다. 알리지도 않았고 청한 일도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그가 던진 말은 이랬다. "박 목사, 조심해. 우리 사촌 형도 2년 전에 이 병으로 수술 받고 1년 뒤 전신으로 퍼져 세상 떠났어. 조심해야 돼." 누가 오라고 했나, 조언을 구했나? 너도 죽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그 망언(?)은 위로도 격려도 아니었고 기분 나쁜 기억으로 남아 있다.


#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소속,
주 사랑 장로 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 격
1. 이민 목회에 소명이 있고, 2세 교육에 사명과 비젼이 있는, 만45세~55세에 해당하시는분
2. 4년제 대학을 졸업후에, 정규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또는 신학 석사 이상의 과정을 졸업하신분
3. 인정된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교단(K.A.P.C)에 가입 가능한분
4. 미국거주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

제출서류
1. 한글 및 영문 이력서
2. 본인 소개 및 목회 소신서
3. 신학교 졸업 및 목사 안수 증명서
4. 최근 6개월 이전의 설교 CD 혹은 동영상(DVD,웹사이트 주소) 2편
5. 가족 사진 첨부된 가족 소개서
6. 추천서 (2인) 반드시 추천인 자필 서명
7. 현 시무 교회 주보(4주치 주보)

제 출 처 주사랑 장로 교회 당회
The Love of Christ Presbyterian Church
209-08 48th Ave Bayside, NY 11364

서류마감 2015년 10월 30일 까지

문 의 김종태 장로 (johnct.kim@gmail.com) 516-523-4959

기 타 1.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 사랑 장로 교회
www.joosarangny.org Tel. 718-229-8855

# 전임교육전도사 청빙

◎ 자격조건
1. 정규 신학대학원졸업하신 분
2. 중고등부 청년부사역 경험있으신 분(2년이상)
3. 이중언어(영어설교)가능하신 분

◎ 제출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포함)
졸업증명서

◎ 보내실곳
솔즈베리한인장로교회
231 North Division St Salisbury MD 21801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제출기간:2015년 11월 14일까지
▶기타
제출하신 분의 비밀을 보장하며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선정된 분은 개별 통보합니다
문의 사항: 조춘현장로: 443-944-6577
※(피아노반주자도 구함)

솔즈베리한인장로교회
www.skoreanchurch.org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에 복음을 싣고 나갑니다.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 하나님을 감동시키다

프랑스 파리에서 목회하시는 김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파리에서 하루 방값이 1500-4000유로인 최고급 호텔에서 일하는데 이 호텔은 투숙객들의 편안함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그들의 취향에 따라 세심하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투숙객들은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생활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호텔의 어떤 화려함보다도 가족 같은 분위기 속의 작고 세심한 배려와 친절한 서비스에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감동'하니 떠오르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폭스뉴스(Fox News)가 미 육군 특공부대 일등상사 앨버트 마를(Albert Marle)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가 포틀랜드 오리건(Portland Oregon)에서 샬롯 노스캐롤라이나(Charlotte, North Carolina)에 가기 위해 한 비행기의 이코노미 클래스에 탔습니다. 그는 여승무원에게 훈장이 달린 예복 상의가 구겨지지 않도록 옷장에 보관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옷장이 일등석 좌석 승객 전용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여승무원의 행동에 마음이 불편해진 일등석 승객들은 앨버트 상사에게 서로 자신들의 자리를 양보하였지만 알버트 상사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일등석 승객 중 하나였던 존 달버그(Jon Dahlberg)가 알버트 상사의 예복을 자신의 좌석 옷장에 보관해주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해줘서 고맙습니다'(Thank you for serving our country)고 말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작은 배려가 배려를 받은 알버트 상사와 지켜본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저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적절한 때의 작은 배려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평범한 시민이든 군인이든, 모든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특히 3살 난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Aylan Kurdi)의 작은 시신이 해변에 떠내려 오는 것을 보고서야 난민들을 수용하는 정책을 세우는, 메마르고 험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배려야말로 삶에 용기를 주는 큰 감동이 됩니다.

저에게도 작은 친절로 큰 감동을 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가족과 친지를 떠나 먼 곳에 있던 신학교를 다니며 춥고 외롭고 가난했을 때 어떻게 아셨는지 저의 대학부 목사님께서 제 생각이 나신다며 격려 편지와 수표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던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평생 가슴에 새길 큰 감동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 뭉클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는 목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푸신 많은 분들의 작은 배려를 통하여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감동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용히 흘려보내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 여행하는 투숙객에게 가족 같은 따뜻하고 친절한 배려를 하는 호텔 종업원이나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작은 배려를 한 일등석 좌석 승객이나 그리고 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작은 사랑을 나누어주셨던 목사님이나, 모두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주인공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친절을 베풀면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격려와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우리의 작은 섬김에 제일 큰 감동을 받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킬 나의 작은 배려와 친절은 무엇일까요?

## 푸/ 른/ 초/ 장

이정수 목사
(능곡새힘교회)

# 나를 누구라 하느냐
## (마16: 13~20)

사람들은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많이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아주 존귀하게 대하면 내 자신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한다면 자신에 대하여 아주 낮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어 보셨을 까요?

일단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와 행하신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믿음이 생겼는가 중간 결산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묻고 싶으신 것이고, 셋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이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물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척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설교자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에 은혜 받은 자들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받은 은혜에 따라서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은 모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정확하게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는 병 고치는 의사로, 어떤 이는 종교 지도자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부자되게 가르쳐 주는 경영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의 이런 신앙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크게 만족해하시며 칭찬과 아울러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고백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기독교 신조의 핵심을 이루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된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된 축복은 무엇입니까? 천국열쇠입니다..

(19절)"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열쇠를 받아야 만사형통 합니다. 사업이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하는 모든 일이 잘됩니다.

그럼 고백만 하면 천국열쇠를 다 줍니까? 아닙니다(롬10:9-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신앙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생깁니다. 베드로가 이런 신앙고백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 고백한 말이 아닙니다. 항상 주를 가장 가까이 모시고 다니면서 한 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늘 동행하는 삶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타난 고백입니다.

롬10:17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신앙고백을 하기 원한다면 늘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롬10:17은 하나님 말씀에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1:3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고 시1편에" 복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D.L.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믿음이 오기 시작했다고 고백하면서 "성경으로 기도하자"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보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빛입니다. 하루 한 장이라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신4:7에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 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11:12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합니다. 마틴 루터는 천국은 무릎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법은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고백과 찬송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위대한 설교가 어디에서 나오며 은혜로운 간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적과 축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막9:29)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고 그 분이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땀 흘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만사형통 하는 천국 열쇠를 받기 원하신다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시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신앙고백하며 삽시다.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반석위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미국 내에서 핍박받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 (하)

## 미 공립교 교과서, 미국 역사도 왜곡하고 친 이슬람화 시켜
## 기독교인 총격은 총기규제로, 무슬림 총격엔 증오범죄로 몰아

이번 주부터는 미국 내에 점점 깊게 퍼져나가고 있는 친이슬람 사회 형성과 그것의 선두자 된 오바마 정부의 실체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이슬람화 되어진 공립학교 교육의 위험!!**

미래를 창조해나갈 다음세대들인 우리 자녀들에게 친이슬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오바마 정책이 밀고 있는 새로운 교육정책이며 현실입니다.

2010년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공립학교 시스템인 Common Core Standard(CCST)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자녀들이 친동성애 교육보다 더 무서운 "친이슬람" 교육에 세뇌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 오바마 정권과 손을 잡은 언론들은 미묘하게 CCST는 이슬람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발표하거나 또는 문화와 종교교육으로만 가르친다고 미화시켜 보도하고 있지만 공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CCST의 친이슬람 교육으로 인해 많은 학부모들은 큰 충격으로 자녀들을 공립교육에서 빼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수파 정치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미국 주정부들 중에서는 CCST가 정식으로 나오전부터 CCST의 비도덕적이고 비전문적인 교육내용을 반대하며 결국은 법적으로 거부하는 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공립교육의 친이슬람 교육은 어떤 것들인가?**

K-12(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의 세계 역사, 문화, 종교 수업시간에 가르치는 교과서들과 The Five Pillars of Islam이라는 참고서적들의 내용은 미국 역사마저 왜곡하여 친이슬람화 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12학년학생들은 미국 내에 있는 모스크나 이슬람 템플을 방문하는 것이 필드 트립(Field Trip)처럼 프로그램에 있으며. 이슬람식의 기도하는 것을 연습도 하며, 이슬람 종교와 문화(샤리아법)가 세계역사와 미국역사에 끼친 영향들을 완전히 미화시키고 왜곡시켜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이며, 세계에서 가장 우세한 종교이며 문화라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친이슬람 교육의 문제는 치우쳐서 미화된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종교로 인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과 유대인 그리고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이전 무슬림들이 얼마나 무참하고 처참하게 남녀노소 상관없이 목이 베이고, 온몸이 불에 타고, 신체들이 절단되며 처형당하고 있는지 그들의 이슬람 종교(샤리아법)에 의한 진짜 행위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이슬람과 테러리스트들을 두 부류의 다른 사람들로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5 Pillars of Islam이 바로 아이들이 배우고 실행하는 수업내용들입니다.

1. Shahadah: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적고, 선포하는 것. 무하마드는 하나님의 선지자, 메신저라고 배우고 있음.
2. Salat: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이슬람 의식 배우기.
3. Zakat: 2.5% 의 "savings"를 가난한 자나 필요한 자에게 주는 것.
4. Sawm: 라마단 때 금식과 절제를 해야하는 것을 강조.
5. Hajj: 평생에 적어도 메카에 한번은 꼭 가볼 것이라고 배우고 있음.

학생들이 배우는 세계역사책에 보면 CCST의 친이슬람 교육으로 인해 더 이상 미국이 기독교가치관에 의해 세워졌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슬람 종교가 미국이 세워질 때 다른 종교들(기독교를 포함)을 이끌어 주었다-"Islam preceded other religions in the founding of America"라고 10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너무나도 왜곡된 역사내용입니다.

또한, 이슬람종교에 대해선 36페이지에 걸쳐 왜곡되고 미화시켜서 학생들에게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1페이지도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슬람 종교의 36페이지 안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코란 무슬림의 확산과 이슬람 제국, 5 Pillars of Islam(이슬람의 기본적인 5기둥) 등등이 교과서와 참고서 수업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에서는 Jesus(예수)를 메시야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슬람에 의하면 무하마드가 예언자며 예수는 선지자중 하나일 뿐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천들은 전쟁중에 대학살을 당했고, 무슬림들은 전쟁에서 늘 쟁취(takeover) 이겨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래는 공립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교과서 몇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 중 오른쪽 위는 교과서 내용이고 왼쪽 위는, 학생들이 시험에서 "B" 이상을 받으려면 종이에 적힌(왜곡된 친이슬람 교육) 내용들을 꼭 포함시켜야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에 있는 Wellesley 공립학교에서는 6학년들이 보스턴 문화센터에 가서 모스크와 같은 장소에서 이슬람법 중 하나인 Shahada 법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수건으로 가리고, 어떤 다른 신앙을 가졌든 상관없이 학교교육 정책상 모든 학생들은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어 절해야 하는 의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립학교 안에는 친이슬람 교육에 세뇌되어지는 학생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국학부모들은 자녀들을 홈스쿨이나 복음적인 기독교학교로 옮기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Tvnext에서도 홈스쿨링과 복음적인 기독교 학교로 자녀들을 옮길 것을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친 이슬람적인 오바마 정부와 언론의 이중 잣대**

지난번에 오리건 주에서 일어난 총기사건에 대해 기독교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질문했던 "머리에 총을 맞은 학생들이 만일 무슬림이었다면"이라고 썼었는데, 실제 일어난 이야기를 나눕니다.

〈10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lspc0316@gmail.com

Q: 저는 목사 안수 후에 몇 년간 부목사 경험을 거친 후 청빙을 받아 현재 담임 목회를 몇년 째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며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성격이 원래 주도적이라서 그런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추진시키다가 교회 평신도 리더들과의 협력관계가 약간불편해지는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신뢰를 쌓는 목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Yoon 목사

A: 이민교회 목회는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이지만 목회는 하나님의 축복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격대로 목회하는데 각 사람에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리는 목회를 하고 자신의 약한 부분은 늘 조심하고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혹 실수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성도들에게도 정중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존 맥스웰(John Maxwell) 목사는 리더십의 21가지 법칙이라는 책

## 평신도리더들과의 관계유지 중요...
## 잘못했을 땐 즉각 사과

에서 자신이 샌디에고 스카이라인교회의 목사로 일할 때의 경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한번은 출연진만 300명이 출연하는 대규모 크리스마스 공연을 할 때 그는 이곳저곳 전국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바쁜 탓인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올바른 리더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세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바로 집행했습니다. 크리스마스 공연의 중요한 내용을 바꾸고, 일요일 저녁예배를 폐지하고, 직원 한명을 해고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맥스웰 목사가 내린 결정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바꾼 것은 공연에 도움이 되었고 주일 저녁예배는 교인들 중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 몇 분이 좋아하시는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교회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해고시킨 직원은 어차피 계속해서 일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즉시 조치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그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이 잘 돌아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혼자 판단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일처리는 늘 핵심리더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내 생각을 제시하고 질문에 답하면서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그 때는 도중에 그 절차를 생략해버린 것입니다. 더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동요가 있었고 투덜되는 소리도 들렸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이 일을 잊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일 처리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자 교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면 구성원들을 그것을 압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잘못을 고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회는 미국교회와 다르고 각 교회마다 목회 환경이 서로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목회도 일종의 인간관계이고 사람을 다루는 정치입니다. 경험이 부족할 때 일을 혼자서 열심히 하다가 리더들과의 관계를 서먹하게 하는 맥스웰 목사와 같은 경험의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쌓고 화평하게 목회를 잘하려면 평신도 리더들과 관계(Connection)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방글라데시의 마니푸리(Manipuri)

전 세계의 1천3백만 마니푸리족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은 인도의 북동부에 거주하지만 인접국인 방글라데시에도 약 119,700명이 살고 있다. 메이테이(Meithei)라고도 알려진 마니푸리족은 몽골족의 후예들이며 메이테이어(Meithei)를 사용한다.

18세기에 여러 번의 전쟁에서 버마인들에게 패배한 후, 많은 마니푸리족들은 자기들의 고향인 인도 북동부의 마니푸르 왕국으로 도주했다. 많은 이들은 이후 영국에 지배를 받게 된 동부 벵갈(East Bengal)에 정착했다. 1947년 동부 벵갈이 독립을 획득했다. 대부분의 마니푸리족이 힌두인이지만 동부 벵갈 시민의 대다수는 무슬림들이다. 즉 그 지역은 이슬람국가인 파키스탄의 동쪽 날개가 됐다.

1971년, 동파키스탄이 파키스탄에서 탈퇴했고 국명을 방글라데시라고 개칭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마니푸리족은 그들의 힌두 스타일을 고수함으로써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방글라데시의 다른 사람들과는 구분된다.

### 삶의 모습

대부분의 마니푸리족들은 북동 방글라데시의 실헷지역(the district of Sylhet)에 거주한다. 그 지역은 인도의 메갈라야(Meghalaya) 주에 접해있다. 실헷은 경치가 아름다운 차 재배지와 무성한 열대 밀림으로 유명하다. 방글라데시의 대부분 다른 지역에는 평야가 많은데 반해 실헷지역은 밀림과 얕은 산지들이 많은 특징이 있다.

마니푸리족은 대부분 농부다. 주된 작물은 쌀이지만 사탕수수, 담배, 오렌지, 파인애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작물도 재배한다. 나미푸리족은 힌두전통에 따라 육류는 먹지 않는다. 이들은 개인위생에는 아주 세심해서 강가에 마을을 이뤄서 세탁과 목욕을 자주 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골지역에서 마니푸리족들은 홍수피해에서 막을 수 있도록 대나무 장대위에 집을 짓는다. 벽은 갈대로 만들어 진흙을 칠하고 지붕은 이엉(thatch)이나 양철판으로 만든다. 마을은 몇 개의 씨족(대가족 단위의 일종)으로 나뉘어진다. 결혼은 씨족내 사람과 할 수 없고 다른 씨족에서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 마니푸리족은 단일한 사회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계층은 인도의 카스트에 맞추어 보면 불가촉천민(untouchables)에 해당한다. 이 사람들은 아무런 세력이 없으며 다른 높은 계급의 지배를 받는다.

여가를 위해서 마니푸리족은 폴로, 보트 경주, 드라마, 춤 등을 즐긴다. 이들의 아름답고 표현이 풍부한 춤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 춤은 실제로는 대화를 노래로 부르고, 행동들을 묘사하는 해설자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드라마다. 주제는 일반적으로 크리쉬나(Krishna) 신의 일생에서 따온 것이다.

### 신앙

마니푸리족은 16세기에 힌두교인으로 개종했으나 이전의 종교적인 요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힌두신들 숭배에 더해 많은 자연의 신들 및 특별히 뱀의 형상으로 지구에 왔다고 하는 신을 숭배한다. 미신적 관습이 마니푸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수탉의 발의 위치를 관찰함으로써 결정을 내린다. 그들은 심지어 "모든 지혜는 수탉의 발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속담을 가지고 있다.

춤은 마니푸리족의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람들의 눈에 춤은 신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며 우주적으로 필수요소다.

### 필요로 하는 것들

방글라데시는 많은 긴급한 필요가 요구된다. 인구의 반 이상이 문맹이고 보건상태가 부적절하며 자주 있는 자연재해가 이 나라를 황폐시키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물질적 필요들보다도 더 심한 것은 많은 영적인 필요들이다. 마니푸리족들은 힌두교, 정령숭배와 미신의 결합으로 눈이 가리어져 있다.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예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 들을 필요가 있다. 이들은 다소 힌두교에 불만족스러워하지만 복음에 대해서도 저항적이다. 메이테이어로 신약이 번역됐지만 이들의 언어로 된 라디오방송은 아직 없다.

#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 유황불로 멸망한 소돔 추정 유적지 요르단서 발견

성경에 유황과 불에 의해 멸망한 것으로 기록된 도시 '소돔'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요르단에서 발견됐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 요르단강 동쪽 '탈 엘-하맘' 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기원전 3500년-1540년)의 거대한 도시 유적이 성서에 묘사된 소돔에 관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2005년부터 발굴 작업을 이끌어온 미국 뉴멕시코주 트리니티 사우스웨스턴대학 스티븐 콜린스 박사는 5.2m 두께의 흙벽돌로 쌓은 10m 높이의 방어용 성벽 유적을 발견했으며 성벽은 여러 개의 출입문과 망루, 최소한 한 개의 통로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올해 탑과 성문을 추가 발견했다. 조사팀은 탈 엘-하맘에서 발굴된 유적은 성서에 언급된 것처럼 요르단강 주위의 중요 교역로에 위치해 번영을 누렸던 소돔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콜린스 박사는 "탈 엘-하맘에서 후기 청동기시대 유물이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청동기 중기 말엽에 갑자기 황폐화된 것을 의미한다"며 "이곳이 소돔이 위치했던 곳임을 뒷받침해주는 증거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탈 엘-하맘을 소돔이 위치했던 곳으로 선택해 발굴한 이유는 이 지역이 청동기 시대 다른 유적지보다 규모가 5-10배 크기 때문"이라면서 "요르단강 계곡 남쪽의 청동기 시대는 고고학계 지도에서 빈 공간으로 남아있었으며 우리가 발견한 것은 중요한 도시국가로 발굴 작업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곳"이라고 덧붙였다.

탈 엘-하맘 지역은 700여년 간 사람이 살지 않고 버려졌다가 다시 번영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도시로 진입하는 거대한 철문을 비롯한 철기시대(기원전 1천년-332년)의 유적에서 드러났다.

콜린스 박사는 소돔이 황폐화된 이유는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전문가들은 소행성 충돌 가능성도 제기했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 IS 성노예 되지 않으려 여성 수백명 자살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이슬람국가)의 성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수백명의 야지디족 여성이 자살했다고 CNN이 최근 보도했다.

아메나 사에드 하산(Ameena Saeed Hasan·女)은 CNN에 "수백명의 여성들이 자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을 구해내고 싶다"고 밝혔다.

하산은 "자살한 소녀들의 사진 몇 개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들이 구조될 것이라는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IS가 그들을 여러 차례 팔아넘기고 강간할 때마다 자살했다"고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적어도 100명은 될 것"이라면서 "대부분 연락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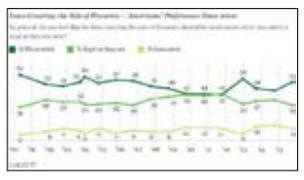
하산과 다른 야지디족 여성들은 IS에게서 탈출하는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수천명의 여성들이 포로로 잡혀 큰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 IS는 야지디족을 악마를 숭배하는 자들로 여기며 남성들은 처형하고 여성과 아이들은 성노예로 삼고 있다. 하산은 현재 위기 가운데 있는 야지디족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여론을 일으키는 인권활동가가 됐으며, 이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국무부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하산에 대해 "이라크 북부의 종교적 소수인들을 위한,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는 끔찍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과 헌신, 그리고 그들을 위한 도움과 구조 활동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의 포로로 잡혀 있는 야지디족에 대한 IS의 강간 등 끔찍한 만행은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었는데, 많은 여성들이 IS 대원들과 결혼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지난 8월 뉴욕타임스의 탐사보도에 따르면, IS 대원들은 비무슬림 여성이나 소녀를 강간하는 것이 알라에 대한 기도라고 여기고 있다. 이는 IS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탈출한 21세 여성과 소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졌다. 그리고 IS 대원들은 자신들의 만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을 자신들의 경전인 쿠란에서 찾고 있다.

### 미 총기난사 사건 연발에 총기규제 찬성율 상승



미국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수반한 총기난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총기규제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갤럽이 19일 발표한 최근 전화 여론조사(10월7-11일·1천15명) 결과 총기 규제를 더 강화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55%로 나왔다. 이는 지난해 찬성 여론 49%에 비해 6% 포인트 오른 것이다.

반면 총기 규제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자는 여론은 지난해 37%에서 올해 33%로 4%포인트, 총기 규제를 지금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같은 기간 13%에서 11%로 2% 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이 같은 여론 흐름은 지난 1일 오리건 주(州) 로즈버그의 '엄프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총격범을 포함해 10명이 숨지는 등 올해 들어 대형 총기참사 사건이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총기 규제 찬성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강력히 추진 중인 총기 규제 강화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엄프콰 커뮤니티 칼리지 총기난사 사건 발생 당일은 물론 이튿날인 2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총기규제 입법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여전히 총기 규제에 부정적인데다 역대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총기규제 찬성 여론(2000년 62%, 2004년 60%, 2013년 58%)이 높았지만, 결국 총기규제 강화 입법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여론의 흐름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IS 연계조직, 이스탄불서 청소년 훈련소 운영"

'이슬람국가'(IS)와 연계한 터키 조직이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서 청소년 훈련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터키 일간지 바탄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이스탄불 경찰청 대테러팀이 검거한 IS 용의자 53명 가운데 24명이 펜딕과 바샤셰히르 지역의 지하 아파트에서 청소년들을 훈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된 용의자 가운데 29명은 성인이며, 나머지 24명은 18세 미만이다.

경찰은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출신인 용의자들을 검거하기 전에 이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들이 군사 훈련소처럼 운영됐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용의자들은 이곳에서 청소년들에게 IS의 기초들과 이슬람국가에서 사는 법 등을 가르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알카에다 연계 조직인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은 IS와 연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시리아에서 IS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우즈베키스탄 용병은 5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 당국은 지난 10일 수도 앙카라에서 102명이 사망한 최악의 테러가 발생하자 터키 내 IS 조직원 검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자폭테러 용의자들이 터키인 IS 조직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터키 일간 휴리예트는 이스탄불 외곽 도시인 게브제의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세르칸 우준(19)군의 아버지가 아들이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할 것으로 걱정된다며 경찰에 아들을 찾아서 체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우준 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지난 1일 직업을 찾겠다며 집을 나갔으며, 시리아와 접경한 남부 킬리스에서 경찰에 연행됐다가 '여행할 자유'에 따라 풀려난 다음날 시리아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지난 서너달 동안 게브제의 판잣집처럼 생긴 IS 근거지에서 세뇌당했다고 주장했다.

#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41)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 1. 초대 교회 - 고난의 끝, 방황의 시작 (3)

### 밀라노칙령 후 성직자의 십자가 무게 가벼워졌지만 성직제도 타락
### 시대/상황마다 십자가의 형태/무게 다를 수 있지만 '십자가=복음'

세월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순리이다. 그러나 항상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다. 그 중의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한 확신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였지만,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동기가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함께 나름대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소명에 대한 확신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지만, 교회 지도자들 특히 목회자들에게 더욱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질문: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 목회자의 소명과 삶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

1) 교회역사를 보면...

■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밀라노 칙령'은 초대교회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핍박과 고난의 역사를 종식시켰다.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었던 성도들에게는 견줄 것이 없는 희소식이었다. 극적인 상황의 변화를 가장 뜨거운 감격으로 받아들이며 반응하였던 것은 성직자들이었다.

313년 전까지 성직자들에게 두 가지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었다. 하나는,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오해하는 외부 세력에 대하여 복음의 진리와 이에 따라 충실하게 생활하는 성도의 삶에 대한 변증이다. 다른 하나는, 배교의 위험 속에서 순교의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성도들을 위로하고 가르치며 이끌어가는 것이다. 교부와 감독을 포함한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임무를 맡았던 모든 지도자들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까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소명에 충실하였다.

4세기에 이르기까지 사도들의 신앙이 계승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성직자들의 책임은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자격조건에 대하여 이미 사도들은 서신을 통해 교회에 알렸다.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지만, 말씀과 치리를 맡은 자들에게는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과 삶의 태도를 요구하였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이 성직자들을 주된 표적으로 삼았던 이유가 있다. 교인들을 위해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그들의 배교와 불신앙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직자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했다. 성도들을 위한 사역으로 인하여 쉽게 영적으로 탈진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먼저 자신들의 십자가 복음에 굳게 선 신앙을 지켜야 했다. 초대교회의 핍박과 순교로 인하여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이 성직자들이었으며, '밀라노 칙령'이 가져다 준 신앙의 자유를 가장 크게 반기고 기뻐한 것도 그들이었다.

■ 가벼워진 십자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신앙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초대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언제나 명심해야 할 명령이다.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는 항상 무거웠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초대교회를 맡았던 성직자들은 십자가의 무게가 '밀라노 칙령' 이후 현저하게 가벼워졌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의 표적이 되었던 그들은, 놀랍게도 로마 교황의 배려와 보호를 받으며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콘스탄틴은 자신이 기독교의 신으로부터 도움을 얻어 전쟁에서 싸워 승리한 결과, 로마를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섰다고 확신하였다. 그는 기독교를 승인한 이후 기독교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직자들에게 전에 없었던 특권을 허락하는 것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직자들에게는 일반 시민들의 의무였던 병역과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세상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도 면제된 것이다. 교회를 맡은 그들의 삶이 일반 로마시민들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콘스탄틴은 간혹 성직자들을 초청하여 만찬을 베풀었다.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틴의 자서전"에서 황제가 어떤 자세로 성직자들을 대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는 개인적으로 초대한 성직자들에게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존경심과 경의를 가지고 대하였다. 그들을 향한 행동과 말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구별된 사람들로 인정하는 것이었다"(자서전, 42장).

콘스탄틴은 구원받지 못한 이교도들에게 주일을 지키도록 하였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자들에게 로마 사회에서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성직자들이 지닌 일반적인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무거웠던 성직자들의 십자가가 가벼워졌다.

■ 십자가를 내려놓고

'밀라노 칙령' 이후로 기독교는 로마 시민이 열망하는 종교가 되었다. 이전과 같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황제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에 대한 자부심을 지녔던 그들에게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지대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수많은 로마시민들이 교회를 찾아 예배에 참석하고 세례를 받았다. 교회가 날로 왕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와 황제의 배려는 교회를 심히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환란과 핍박 중에서 목숨을 내걸고 지켜왔던 생명의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의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교회는 십자가를 지려는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성직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섬기던 시절이 지났다. 온갖 혜택과 보호를 받게 되었다. 자연히 성직에 대한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그 당시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회가 외면하는 대상이었다. 오랜 세월동안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가난을 벗 삼아 살아야 했다. '밀라노 칙령' 발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황제가 성직자들의 삶을 책임을 지게 되니, 교회에서 가장 먼저 가난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로마 사회에서, 황제에게 잘 보이려면 무엇보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 부과 권력을 지닌 자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되었다. 물론 순수한 신앙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었다. 사실 위에 기록한 "교회가 날로 왕성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사도의 말씀을 들은 후 회개하여 성도들이 날로 증가하였다"라는 표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머릿수가 많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이 곧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드린 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

성직자도 마찬가지다. 성직제도가 타락했다. 성직매매가 허용되었다. 삶이 보장된 직업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군침을 흘리며 성직을 얻으려 하였다. 사도들이 제시한 성직자의 신앙과 삶의 모범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겸손한 응답, 소명이 없이 사명을 감당하려는 자들이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물론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나 성직자들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져도 신실한 백성을 세워 주의 교회를 책임지게 하시기 때문이다.

〈10면으로 계속〉

# 가정사역 칼럼

## 분노 다스리기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요즘 한국에서는 충동적인 분노로 저지른 사건들 때문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곤 한다. 자기 차를 추월했다고 추월한 차를 쫓아가 진로를 계속 방해하는가 하면 또 차 앞을 가로막아 망치를 휘두르며 차 범퍼를 내리친 사건도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았다.

오늘은 별거나 이혼 후에 겪게 되는 분노에 대해 다뤄보려고 한다. 별거나 이혼 뒤에 겪는 분노는 조절하지 않으면 삶 속에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고 급하게 성장하며 정서적 건강,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된다. 다행이도 분노는 통제될 수 있다.

분노 조절하는 몇 가지 방법

첫째로 분노를 인정하는 것이다(화가 난다는 것을 인정하라).

두 번째로 분노의 원인을 규명해 보는 것이다. 분노는 2차 감정이다. 즉 내 안에 숨어있던 다른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분노하게 되는 것이다. 내안에 숨겨져 있던 감정으로는 미안한 마음, 죄책감, 목표에 대한 좌절, 사라진 희망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는 들어줄 사람을 찾되 신중하게 고르라.

넷째는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긴장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 분노를 풀기 위해 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샌드백을 주고 마음껏 치게 했더니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러한 긴장상태에서는 그런 행동이 분노를 쫓아 보내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뭘 때리거나 사람에게 고함을 치는 일 같은 것으로는 분노를 가라앉혀주지 못한다.

다섯째 혼자 조용한 시간 갖도록 한다(타임아웃). 곧 조용한 시간을 갖으면서 자기관리를 하며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보는 것이다.

여섯째로 자기표현을 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나 전달법을 사용하여 나의 느낌, 나의 소망, 나의 바램,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표현하라. 예: '나는 ~을 하고 싶어요', '난 이럴 때 이렇게 느껴요 등')

일곱 번째로 분노를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여덟째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과정'임을 깨닫고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며 자제력을 기르도록 한다. 예수님은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하셨음을 묵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하나, 둘, 셋…… 열까지 센 다음에 말을 하거나 행동한다. 천천히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근육을 풀고 긴장을 푼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힘쓰며 시편 7편을 묵상한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빌4:8).

이메일: familykum@gmail.com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덴버예닮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Tel.(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YDKoreanchurch.com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Fax.(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중고등부(영어): 오전 10시, (한어): 오전 11시
유치, 유년느부: 오전 10:00
Tel.(508)425-4579, Fax.(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704)529-0900 / 0998(팩스겸용)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융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Fax.(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702)749-9929, Fax.(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사택.(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703)941-4447, Fax.(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ljkc.org
Tel.(804)560-7500, Fax.(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cr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Fax.(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860)643-4738, Fax.(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12)

# 기도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무기

**윤병이 목사**
(부산반여제일교회 담임)

##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나르는 통로, 재능도 기도 없이 발휘 못해
## 기도는 공격에도 방어에도 최상의 무기...기도하는 자가 애국자

인간은 매일 전쟁을 치르며 사는 존재다. 육적으로는 생존경쟁에 시달리고, 영적으로는 자신과 세상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을 싸워나간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가 좋아야 한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무기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신무기를 터트리는 뇌관이요, 총알을 발사하는 방아쇠와 같다.

마가복음 11장 23-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다. 기도는 강한 힘이요, 무기이다.

일꾼을 뽑을 때 쓸 데 없이 말이 많은 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또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자도 역시 쓰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주의 일꾼은 말보다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 볼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 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전4:19-20).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에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우리가 재능을 묻어두고 있다면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 재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면 세상에 복이 임하도록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도 없이 이런 능력은 없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 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막9:27-29).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르는 통로다.

###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고 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온다. 기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을 막아 비를 멈추게도 하였고(왕상17:1), 바알과 아세라신의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도 승리하였고(왕상18:36-40), 42개월 동안 멈추었던 비를 내리게도 하였다(왕상18:41-46). 그러기에 기도는 미사일보다 더 강하고 어떤 요새보다 더 든든한 무기다. 미사일은 죽이고 파괴할 뿐 살리는 힘은 없다. 그러나 기도는 인간의 마음과 성품을 개조할 수 있고 살리는 힘도 있다.

요한복음 14:12-14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했다. 또 요한복음 15:7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다.

### 미사일보다 강하다

거대한 댐에서 일어나는 물의 힘으로 만들어낸 전기의 힘은 큰 도시를 밝혀주고 거대한 공장도 움직인다. 그것이 바로 수력발전이다. 1945년 4월 6일 히로시마를 불태워 버린 것도 원자력의 힘이다. 오늘날 인간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핵무기다.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 시설은 수천 마일 떨어진 러시아 땅 중심부를 명중시켜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만약 한국 땅에 떨어진다면 남북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중국도 쑥대밭이 될 것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가 바로 그 무시무시한 힘을 자랑하는 미사일이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기도의 힘은 더 강하다. 기도보다 더 강한 공격 무기가 없으며, 기도보다 더 강한 방어 무기도 없다.

기도라는 무기는 공격에도 방어에도 최상의 무기다. 기도는 ①풀무불도 식혀놓고(단3:8-30) ②사자의 이빨도 무디게 하고(단6:10-23) ③질병도 물리치고(약5:14-18) ④귀신도 추방한다(막16:16-17, 행9:11-12). 어떤 무기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기도는 귀신도 쫓고 질병을 물리치는 힘도 있다(막9:14-19).

### 기도 자체가 국방이다

구약시대 이야기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였을 때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놀라 엘리사에게 물었다. "내 주여 어찌하면 좋사오리까?" 엘리사 선지가가 게하시에게 대답하기를 "두려워 말라 무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고 하고 기도하니 게하시의 눈이 열려 보니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들이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었다(왕하6:14-16).

기도가 바로 국방이다(왕하6:23). ①모세는 기도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출17:8-16) ②엘리야나 엘리사도 기도로 나라를 지켰다(왕하6:11-23). ③에스더도 풍전등화 같은 나라와 백성을 기도로 구했다(에4:6).

엘리사는 아람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알아 아람왕이 작전을 세워도 엘리사가 먼저 알고 미리 방어하게 되니 아람왕이 번뇌하며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의 정탐이 있지 않느냐"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왕하6:11). 그래서 엘리야가 떠날 때 엘리사는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라고 했다(왕하2:12). 또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 요아스 임금도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했다(왕하13:14).

이들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약할 때는 군사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적군을 막아내고 물리쳤다. 이들의 능력은 기도의 힘이니 기도가 바로 국토를 지키는 병사들이며 무기란 말이 아닌가! 누가 애국자인가? 성전에서나 산속에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애국자요, 병거와 마병이며 국방이 아닌가?

오늘은 힘을 요구하는 시대요, 힘을 자랑하는 시대다. 그러므로 기도하여 능력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기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백지수표를 버리는 것과 같고, 거대한 하늘의 보물창고 열쇠를 강물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다. 얼마나 바보같은 짓인가?

기도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무기다. 그 어떤 신무기가 발명된다 해도 기도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을 것이다. 어떤 무기가 귀신을 추방하고 죽음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기도의 무기는 귀신을 추방하고 목숨도 붙인다. 성경은 믿는 모두에게 이 능력, 권세를 주셨다(막16:17-18). 그러므로 기도하라. 특별히 나라를 위해 '구국기도'를 드리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장군보다 낫고, 백만 군사보다 낫다.

##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 자존감을 높이는 비결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이다. 최근 영국의 자선단체인 '칠드런스 소사이어티'와 요크 대학이 발표한 '2015 좋은 유년기보고서'에서도 한국 어린이들은 "전반적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한 어린이들의 비율이 15개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외모에 대한 만족도 역시 꼴찌였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또한 14위로 거의 꼴찌에 가까웠다.

한국 어린이들은 왜 불행할까?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학습 문화와 성취주의에 찌든 직업 문화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과 직장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을 성공과 실패로 규정하고 있어 어려서부터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거나 입시에 압박을 견뎌가며 공부에만 몰두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 아이들에게 행복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문화가 아이들의 자존감에도 상처를 준다는 사실이다. 자존감(Self esteem)은 자신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는 감정이다. 한국 부모들은 흔히 아이들의 비교의식을 자극하며 자신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압박한다. "다른 아이들도 100점 맞았니?" "이번에도 그 아이가 또 1등 했니?"라는 말들로써 은근히 아이들의 자존감 형성을 방해한다.

과도한 외모지상주의도 문제다. TV에서 예쁜 것이 착하다는 논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가하면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문화가 고착화 되고 있다. 아이들은 다양한 매체들이 내세우는 예쁘고 잘생긴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기 자신의 외모가 그 기준과 다르면 '나는 못생겼다'는 낮은 자존감을 갖는다. 연예인의 화장이나 옷차림을 지나치게 따라한다든지 중학생 때부터 성형수술을 받는 현상은 이렇게 낮아진 자존감을 채워보려는 심리적 반응인 셈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왜곡된 문화와 기준들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려 결국 '나는 불행한 아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긍정심리학자들의 연구결과가 보여주듯 행복과 자존감의 상관계수는 0.6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여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행복하기 어렵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행복하기 어렵다. 자존감을 연구한 심리학자 나서니엘 브랜든(Nathaniel Branden)도 "자존감이 낮으면 어려움을 겪을 때 두려움과 우울함에 압도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존감이 높으면 덜 우울하고 빨리 극복할 수 있어 금방 행복감을 되찾는다"고 말한다.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보다 비교적 더 행복하다.

따라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길러 주려면 사회가 정한 행복의 기준을 강요하기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 곧 기쁨의 성품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기쁨의 성품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이다.

실제로 자살을 결심한 학생이 기쁨의 성품을 배운 뒤 자존감을 회복한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필자가 속해있는 사단법인 한국성품협회에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성품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수업을 들은 한 학생이 첫 수업 당시에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였다. 그러나 성품 강사로부터 "너는 존재만으로도 존귀하다"는 가르침을 받으며 점차 기쁨의 성품을 회복하고 결국 새 삶을 얻은 것 같은 행복을 되찾은 사례가 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을 돌려주려면 먼저 가까이에 있는 어른들이 기쁨의 성품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가 정한 성공의 기준만을 가르쳐왔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고 즐거워하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부모나 교사부터 기쁨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모나 교사에게 기쁨의 성품이 있어야 아이들에게도 기쁨의 성품을 일깨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성품이 주는 행복을 경험한 사람만이 좋은 성품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6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 2016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6.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6)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Dates: May 13(Fri)~16(Mon) 2016
2) Place: Philadelphia USA

***3. Examination Subjects***
1)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2)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1) OT Exegesis Text - Malachi 4:1-6
(2) NT Exegesis Text - 1 Corinthians 2:1-5
(3) Thesis Topic - What is the Biblical view on homosexuality? Elaborate the Church's response on this issue.
(4) Sermon Text - NT: Romans 1:18-32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2.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3.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Jameshur63@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b)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YunJoonHur-OTExegesisPaper.pdf)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3) Oral Interview

***4. Accompanying Documents***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 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s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6.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5) Curriculum Vitae(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7) Fee: $150(US). (Pay to the order of - The New Life Presbyterian Church of NY)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6.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5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3)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0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7-20).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6. Miscellaneous Information***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3-16 2016 Philadelphia ) through Rev. Yun Joon Hur (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7. Submission Address***
Rev. Yun Joon Hur / Address:
Cell : (718)637-1470 E-mail : Jameshur63@Hotmail.com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Hyun-in Kim (201)875-8212 (Hyuninkim@hotmail.com)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Yun Joon Hur (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3) Treasurer of the exem commitee : Rev. Dae Up Kim (339)223-2763 (Daenaree@yahoo.com)

총회장: 김영수목사 서기 : 조용철목사 고시부 부장 : 김현인목사 고시부 서기 : 허윤준목사

아주사퍼시픽신학교 한인동문회 주최 신학특강에서 박노훈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 '누가복음의 경제이해에 관한 인류학적 고찰'

## APU한인동문회 주최 신학특강, 강사 연세대 박노훈 교수

아주사퍼시픽신학교 한인동문회(APU 회장 최장식 목사)가 주최한 신학특강이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APU LA 리저널 센터에서 열렸다. '누가복음서의 경제이해에 관한 인류학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목실 부교수인 박노훈 교수가 강사로 나서 강의했다.

박노훈 교수는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누가가 직면한 문제들은 종말의 지연, 로마와의 관계였다"며, "누가복음의 서사는 살림(오이코스)의 담화를 통해 초기 기독교의 다양한 전승들 속에서 가장 깊이 천착된 정치경제의 메시지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복음은 경제에 대해 깊고 폭넓은 전망을 전해준다. 주후 1세기 지중해 세계의 경제는 세계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살림의 모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누가는 '살림'이 구성원의 제한적 복지를 넘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로 귀속됨을 전한다. 이때 살림의 주체를 형성하는 자신(self)와 타인(other)의 관계는 누가의 살림 담화 속에서 주요한 주제의식을 이룬다. 특히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외부와 내부를 넘나들며, 두 아들과 맺는 상호작용을 통해 배타적 살림의 경계선을 허물어 버린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에 앞서 두 개의 비유('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통해 소유에 대한 그의 주요한 관심을 드러냈다"고 말하며 "누가는 사회적이며 문화적이고 종교적이며 정치적이기도 한 세계의 내적 살림의 구성에는 적극적인 반면, 로마제국과 그의 대리적 통치자들과의 직접적 충돌에는 관여치 않는 점에서 소극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간 속에서 현실을 거스르며 삶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분명히 누가의 복음서가 불러일으키는 비전이며, 그의 대안적 살림의 모형은 모든 잃어버린 자를 위한 생명과 자유의 공간으로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 미주동부 총신신대원 동문회 가을 아유회

미주동부 총신대학신학대학원 동문회(회장 김남수 목사) 가을 가족야유회가 지난 12일 뉴욕 킹스포인트 공원에서 열렸다.

화창한 가을 날씨 가운데 야유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변창국 목사의 사회, 박성원 목사 기도, 이재철 목사 특송, 성경봉독, 김남수 목사가 시편 133:1-3을 본문으로 설교 후 축도했다. 이어서정광희 목사의 오찬 기도 후 식사와 친교를 나눴다.

미주 동부 동문회의 주요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김남수 목사(75회, 뉴저지아가페장로교회) △수석부회장 박희근 목사(79회, 뉴욕동원장로교회) △부회장 조문휘 목사(75회, 온누리교회), 이재철 목사(79회, 필라밀알선교단) △총무 변창국 목사(81회, 뉴욕해뜨지교회) △서기 황의환 목사(81회, 뉴욕광명장로교회) △회계 김요셉 목사(96회, 뉴욕예수생명교회) △협동총무 박성원 목사(78회, 뉴욕풍성한교회), 장의한 목사(79회, 뉴햄프셔장로교회), 정광희 목사(82회, 뉴저지영광장로교회), 정요석 목사(81회, 뉴저지성민교회).

〈기사제공: 총신대원동문회〉

미주동부 총신대학신학대학원 동문회 야유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새 회장 허윤준 목사 · 부회장 정기태 목사

##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 제26회 정기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 제 26회 정기총회가 지난 19일 열려 새 회장에 허윤준 목사가 유임됐다.

지난 회에 이어 회장에 유임된 허윤준 목사는 동문회 운영 방향에 대해 △동문회 주소록 발간△동문 선교사 개척교회 지원 △신학교 장학금 지급 △삼손 뮤지컬 여행 △온 세계에서 사역하는 동문 소식 나눔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전 11시 플러싱 산수갑산II 식당에서 열린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회장 허윤준 목사 △부회장 정기태 목사 △여자부회장 이경림 전도사.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임영건 목사 인도로 기도 이경림 전도사, 설교 허윤준 목사, 광고 정기태 목사, 축도 김지회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허윤준 목사는 "독수리 날아오르는 동문회"(사40:27-3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고 최선을 다해 사역과 목회를 하지만 힘들고 점점 지쳐가고 있는 이유는 위로 새 힘을 받기보다는 본의 아니게 옆으로 사람의 힘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 때문"이라며 "어떻게 위로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동문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첫째, 습관적인 불평과 섭섭함을 멈춰야 한다(27절), 둘째,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어야 한다(28-29절). 셋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29-31절)"이라고 말했다.

허윤준 목사는 "한눈팔지 않고 주님 한분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집중해야 한다. 독수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평범한 새와 같지만 한번 날아오르면 수천마일을 퍼덕이지 않고 부드럽게 날아다닌다. 주님을 바라보며 집중할 때 우리는 회복되고 강건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기사제공: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8월 구호팀 Reunion Night 행사

## 헬핑핸드미션네트웍, 대통령봉사상 시상과 장학금 수여

아이티 구호 전문기관인 '헬핑 핸드 미션 네트웍'(Helping Hands Mission Network, 대표 조항석 목사, 뉴저지뿌리깊은교회)는 지난 17일 오후 6시, 뉴저지 레오니아 연합감리교회에서 아이티 8월 구호팀의 Reunion Night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감사의 나눔과 아이티를 다녀온 청년, 학생들의 간증 발표 등이 있었고 2014년 및 2015년 구호 참가자에 대한 대통령 봉사상 시상과 장학생 장학금 수여가 있었다.

2014년 참가자 중에서는 금상1명, 은상 1명, 동상 11명, 2015년 참가자 중에서는 금상 3명, 동상 19명이 봉사상을 수상했다. 또 3명의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헬핑 핸드는 아이티 고아원 구호사역에 전념하면서, 아이티 대지진 이후 26회에 걸쳐 아이티를 방문하고 고아원 식량, 교육, 의료지원 등을 하고 있다.

매년 8월에는 청년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 참가해 현지 고아원에서 음악회를 열고, 생필품과 식량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연락처: (201)446-4466

〈기사제공: 헬핑핸드미셔네트웍〉

헬핑핸드미션네트웍 Reunion Night 행사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가운데줄 맨 오른쪽 선 사람이 대표 조항석 목사.

미주한인가정폭력방지연대 발대식이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열렸다

# 미주한인가정폭력방지연대 발대식

## 7개 가정사역단체 연합, 홈페이지 개설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카니정조)와 아태여성보호센터(CPAF 소장 데보라서) 등 7개 가정사역단체들이 연합해 미주한인 가정폭력방지연대(미가연)를 발족했다.

KFAM과 CPAF 스텝들은 20일 오전 10시30분 KFAM 컨퍼런스룸에서 미가연 발대식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하기위해 미주한인의 이민역사와 더불어 지난 30여년 동안 한인 가정들의 가정 폭력과 이를 위한 예방과 중재를 위해 서비스해온 미주지역 7개 가정사역단체들이 연합하여 미가연을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CPAF 데보라서 소장은 "미가연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서비스를 빨리 찾고 도움을 빨리 받을 수 있기 위해 마련됐다. 그것을 위해 홈페이지(www.nkaceda.org)를 개설하여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 소장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관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같은 사역을 하는 기관들과 함께 자료를 나누면서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KFAM의 제니퍼오 프로그램 매니저는 "미 전역에 여성 3명중 한명이, 남성 4명중 한명이,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성적폭력, 가정폭력 등을 경험했다. 또한 미 전역 여성 4명중 1명, 남성 7명중 1명은 배우자나 파트너에 의해 심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 그들 중에 KFAM을 통해 상담을 비롯한 서비스를 받았다"고 언급하며,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하다보면 남가주 외 미네소타, 미시건, 메릴랜드 등 동부지역에서 가정폭력 관련 연락을 받게 된다. 특히 한인들 중에는 영어사용이 용이하지 못해 한인상담사들을 찾는다"고 말했다.

미가연은 △미국 내의 가정폭력 서비스 기관들과 실무자들, 봉사자의 네트워크의 강화 △한인들을 위한 가정폭력 서비스와 자원 및 사례 공유와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정보공유 △문화적으로 적합하고 친숙한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법의 공동 모색 등의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된다.

이번 미가연에 참여하는 기관은 한인가정폭력방지연대(KACEDA-샌프란시스코, 북가주), 한인가정상담소(KFAM-LA, 남가주), 아태여성보호센터(CPAD-LA, 남가주), 여성핫라인(KANOWIN-시카고, 일리노이), Asian Services in Action, Inc(클리브랜드, 오하이오), 뉴욕가정상담소(KAFSC-뉴욕, 뉴욕주), 그리고 Asian Family Support Services of Austin(어스틴, 텍사스)이다.

▲문의: (213)235-4848

〈박준호 기자〉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1부: 오전 9:00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 (718)358-6225, Fax.(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철야: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718)361-9199, Fax.(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moakyang.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 (화-토)
Tel.(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yaho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18)461-7835, CP.(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 예배: 오전 9:00
주일2부 예배: 오전 11:00
EM영어 예배: 오후 1:30
화요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347)502-2571, Fax.(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http://nycdchurch.com/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Fax.(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516)333-1757, 목사관.(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낮예배: 오전 10:45
주일영어예배: 오후 1:00
주일중국어예배: 오후 1:00
주일스패니쉬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Fax.(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q.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718)672-1150 Fax.(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q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친유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516)277-1103, Cell.(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m@gmail.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www.pcov.org
Tel.(604)584-5780, Fax.(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밤예배: 오후 7:00
Tel.(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2,3,부 스페니쉬 설교)
Tel.(595)21-574-985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Fax.(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 동부교계 게시판

east

### 뉴욕백민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위임식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뉴욕백민교회가 담임 강기봉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임일송 목사 위임식을 갖는다. 일시는 11월 1일(주) 오후 5시. 설교는 부총회장 고택원 목사가 맡는다. 이날 교회설립 30주년 기념집과 강기봉 목사의 사도행전강해 설교집을 증정한다.

▲문의: (718)822-0206

### 제6회 아가페열방찬양제

뉴저지아가페장로교회(담임 김남수 목사)가 주최하는 제6회 아가페열방찬양제가 11월 1일(주) 오후 5시 본 교회에서 열린다. 지역사회 및 타민족교회와 교류를 통한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이 연례 찬양제는 올해 유스댄스미니스트리 등 80여개 팀이 출연한다. 출연을 원하는 팀들은 이상호 집사에게 연락하면 된다.

▲문의: (732)213-5856

### 전임 교육전도사 청빙

메릴랜드에 있는 솔즈베리한인장로교회(담임 김동영 목사)가 전임 교육전도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에 2년 이상 경험이 있으며 이중언어(영어설교) 가능한 자로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마감은 11월 14일까지. 서류 보낼 곳: 231 North Division St. Salisbury, MD 21801

▲문의: (443)944-6577, www.skoreanchurch.org

### 담임목사 및 교육전도사 청빙

콜로라도에 있는 덴버한인북부장로교회가 담임목사 및 교육전도사를 청빙한다. 담임목사 자격은 정규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장로교 가입이 가능한 목회경력 3년 이상, 이중언어 가능하고 미국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력서(사진포함), 목사안수 증명서, 최종학력 증명서, 목회소견서와 자기소개서, 최근설교 2회분, 추천서 1통이 필요하다.

▲서류 보낼 곳: eholemano@hotmail.com

### "예수쟁이 김삿갓" 출판잔치

이계선 목사(전 미주기독문학동우회 회장)의 저서 "예수쟁이 김삿갓" 출판잔치가 10월 31일(토) 오후 1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다.

▲문의: (646)549-3939

# "다시 한번 뉴욕에 성령의 불을!"

## 대뉴욕복음화 부흥성회, 강사 이태희 목사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뉴욕대표본부(회장 김승희 목사)가 주최한 "대뉴욕복음화 부흥성회"가 "다시 한번 뉴욕에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주제로 이태희 목사를 강사로 지난 16일부터 사흘간에 걸쳐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렸다.

한국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인 이태희 목사는 "1977년 여의도 광장에서 750만 성도들이 모여 우리 민족의 죄를 통회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한 미스바 대성회가 있었다"며 "이번 뉴욕 성회는 2017년 민족종일복음화 대성회 40주년을 준비하는 준비성회"라고 밝혔다.

이태희 목사는 동 운동본부 1대 신현균 목사에 이어 2대 총재로, 자타가 공인하는 이 세대의 마지막 부흥사이기도 하다.

첫날 집회는 조원태 목사 사회로 경배와 찬양은 프라미스교회 찬양팀,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의 무용에 이어 기도 전희수 목사, 성경봉독 최현준 목사, 찬양 프라미스교회 찬양대, 강사소개 문석호 목사, 설교, 헌금기도 최요셉 목사, 헌금연주 조이플앙상블, 광고 김영환 목사, 축도 방지각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태희 목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행3:1-1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한국 기독교인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사람이 31%"라며, "이런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 종교인이 돼서는 안된다. 신앙인이 돼야 한다. 신앙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한다. 예수 믿는 게 본업이고 먹고 사는 일은 부업이다. 성령 받고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전도하는 성도가 되라"고 전했다.

대뉴욕복음화 부흥성회에서 강사 이태희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둘째 날 이태희 목사는 설교본문을 요한복음 4장으로 바꿔 설교했다. 이 목사는 진정한 예배에 대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예배는 열심에 있지 않고 진실에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은 양승호 목사 사회로 뉴욕순복음연합교회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특순 케리그마중창단, 기도 현영갑 목사, 성경봉독 김수경 목사, 찬양 연합찬양대, 설교, 헌금기도 권캐더린 목사, 헌금특송 살렘찬양단, 광고 김영환 목사, 축도 김원기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셋째 날도 이태희 목사는 설교본문(마5:21-24)을 바꾸었다. 이 목사는 뉴욕교계에 화목이 필요하다며, "먼저" 해결할 일은 ①형제화목 ②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③네 눈의 들보빼기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특히 "화목"에 대해 강조하며 "화목하기 위해 희생이 필요하고, 희생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며, 진정한 회개는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자녀가 부모를 닮듯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날은 김영환 목사 사회로 경배와찬양 뉴욕정원교회찬양팀, 기도 오태환 목사, 성경봉독 주효식 목사, 찬양 연합찬양대, 설교, 헌금기도 뉴욕사모합창단, 감사패 증정(이태희 목사, 김남수 목사), 광고 이희선 목사, 축도 허연행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14일 뉴욕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태희 목사는 "40년간 부흥사로 말씀을 전했다. 예전에는 부흥회를 하면 눈물과 회개와 변화, 헌신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며, "한국교회 부흥에 부흥사가 기여했지만 망친 것도 있다. 부흥사는 해결사다. 부흥사의 설교는 베드로와 스데반 설교로 나눌 수 있다. 이번 집회에 몇 명만이라고 '깨져도' 성공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태희 목사는 뉴욕복음화 성회를 마치고 연이어 19일부터 사흘간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집회를 가졌으며, 주말에는 시카고에서 집회를 인도한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임실행위에서 김원기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있다.

# 감사보고 아직 안 끝나...총회서 보고

## 뉴욕교협 5차 임실행위, 윤리위 보고서 발표

뉴욕교협 5차 마지막 임실행위가 지난 16일 오전 교협사무실에서 열렸다. 4차 실행위 때 미진했던 총무보고와 선관위, 신입회원, 네팔구제헌금 그리고 회계 감사보고가 있었다.

이날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원기 목사, 서기 현영갑 목사, 위원 김용걸 신부 신현택 목사 황동익 목사 이희선 목사 유승례 목사 박태규 목사)가 보고한 활동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금번 회장 및 임원 활동비에 심각한 재정초과 지출 △회장이 차기 임원선거에 출마를 종용해 후원금 수수 △차기 임원 선거에 현 임원의 관여 및 금품수수 부인 △감사에 요청한 8가지 사항.

윤리위원회는 재정의 불투명성과 초과 지출을 지적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를 파헤쳐 윤리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재정의 예산 초과 지출 금액을 반환하게 할 것인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 사과를 받고 상벌위원회에 회부할 것인가 △다용서로 덮을 것인가 등을 제안하며 솔로몬의 지혜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원활동비 내역이 합당치 않게 사용됐다면 변제해야 하지만 단순히 예산을 초과 지출했다고 금액을 반환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한 회원의 지적에 이재덕 회장과 모든 임원들의 사과로 일단 마무리 됐다.

그러나 감사팀의 재정 감사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이날 감사 허윤준 목사는 "완전한 회계 감사가 이뤄지지 않아 마지막 감사를 20일로 연기했다"며, "강사 지원금을 받아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거나 교협 활동비 외에 사용한 것은 변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공직자로서 받은 돈은 공금"이라고 말했다.

이번 5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한 주요 이유는 임원 활동비를 비롯한 재정문제였으나 결국 윤리위원회 보고서는 명확한 포인트를 집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바톤은 총회로 넘겨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진하 목사 인도로 기도 권캐더린 목사, 말씀 문석호 목사, 광고 김희복 목사, 축도 신현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문석호 목사는 "축복의 사람들"(요삼2-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교회의 특권, 사명은 진리를 선포하고 성도들이 진리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려면 먼저 내가 복을 받고 복의 사람이 돼야 한다. 우리 목사 자신이 먼저 영혼이 잘되고 건강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원정 기자〉

# 뉴욕목사회 11월 2일 정부회장 후보 발표

## 정기총회 23일...체육대회 겸 야유회도 풍성

뉴욕목사회(회장 이만호 목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병기 목사)가 11월 23일(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정부회장 후보등록을 발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6일부터 후보등록을 받기 시작했으며 21일(수) 오후 5시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다. 후보자 확정 발표는 11월 2일(월) 있게 된다.

또한 마지막 임실행위원회가 11월 5일(목) 열리며, 정기총회는 오전 10시 뉴욕목양장로교회(담임 송병기 목사)에서 열린다.

입후보자 제출 서류는 등록원서 1통(목사회 소정양식), 소속교단 추천서 1통(독립교단은 증경회장단 3인 이상 추천서로 대신), 목사회원 5명 이상 추천서, 증경회장 2인 이상 추천서(독립교단 제외), 이력서(사진 부착), 입후보 소견서, 목사안수 증명서 등이 있어야 한다.

한편 뉴욕목사회는 지난 15일 체육대회 겸 야유회를 갖고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했다.

알리폰드 파크에서 열린 체육대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회장 김영환 목사 인도로 기도 박진하 목사, 말씀선포 허걸 목사, 축사 이재덕 목사, 인사말씀 이만호 목사, 광고 김진화 목사, 축도 안창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뉴욕목사회 체육대회 참석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증경회장 허걸 목사는 에베소서 5:6을 본문으로 한 말씀에서 "본인이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와 목회의 환경은 달라졌지만 목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며 "목회자는 겸손해야 한다. 뉴욕일원의 여러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때 목회자가 주님의 말씀에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바베큐 등 점심과 친교의 시간이 이어졌으며, 경품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이 참석자 모두에게 돌아갔다.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 김성국 담임목사가 CTS소년소녀합창단을 소개하고 있다.

# "주일학교를 살리자..."

## 퀸즈장로교회, CTS소년소녀합창단 초청공연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지난 16일 저녁 한국 CTS소년소녀합창단(지휘 윤학원)을 초청, 찬양의 밤을 가졌다. 소년 소녀로 구성된 58명의 단원들은 주옥같은 노래로 참석자들의 마음을 훈훈케 했다.

김성국 목사의 기도와 합창단 소개 후 공연이 시작됐으며 김성국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성국 목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꼭 필요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단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윤학원 장로는 공연에 앞서 퀸즈장로교회 찬양대원들을 대상으로 30분간 세미나를 인도했다.

윤 장로는 "한국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심지어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안타까워 어린이합창단을 창단하게 됐다"고 CTS소년소녀합창단의 발단 동기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합창단은 "Make a Joyful Noise unto God" 등 성가곡과 재있는 합창 "애들아 놀자", "반딧불 미사", 한국민요 등을 불렀으며, 솔로무대로 "Lungi dal caro bene", LAUDAMUS TE" 등을 불렀다.

〈유원정 기자〉

〈5면에서 계속〉

지난 4월 중순에 3명의 무슬림들이 "Atheist 무신론자"의 총기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오바마 정부는 무슬림들이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을 "총기규제(Gun-Control)" 이슈로 몰아가지 않고, "증오범죄(Hate Crime)"으로 급속히 방향을 몰아갔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들어가기도 전에, 모든 분석과 파악이 되기도 전에, 오바마 정부는 FBI, 사법부까지 동원시키며 언론들을 통해 당시의 총기사건을 무슬림에 대한 "증오범죄"로 계속 밀고 가더니, 결국은 당시의 총기범인을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총기범행자는 "사형에 당하게 될 것 같다"라는 뉴스로 온통 소란스러웠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겨우 3개월 동안 수십명이 죽었을 때는 단지 "총기 소유권한을 제한시키지 않아서"가 이유였지만, 무슬림 3명이 죽었을 때는 미국 시민들을 "무슬림을 증오하는" 사람들로 죄책감을 조장하여 보도했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오바마 정부가 미국 내에 있는 무슬림들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 "이슬람 제국"이 세워질 수 있는 위험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은 발표하기를 미국은 10만 명의 시리안 피난민들을 받겠다고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에 여러 보수파 대통령 후보자들은 위험성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UN의 보고에 의하면 시리아 무슬림 피난민들 중 72%는 남자, 13%는 여자, 15%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결국,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어린이 피난민은 언론용일뿐, 무슬림 남자 피난자가 75%나 되는 것은 큰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5% 이상의 피난민들이 시리아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들어오다가 들켰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 사원 산에 있는 Al-Aqsa 모스크의 이슬람 성직인 Sheikh Muhammed 가 이슬람 코란과 샤리아법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따르고 복종하는 무슬림들에게 설교하기를 수십만 명의 이슬람교 피난민이 유럽과 미국에 침공하여 "이슬람 제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참고로, "이슬람 제국"은 이들의 중요한 단어이고 사명입니다.

미국 상원의원 Chuck Grassley가 말하기를 이슬람 국가와 다른 테러 단체들이 피난민 위기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부는 테러범들이 미국에 입국 못하도록 구체적이고 안전한 계획을 세우지도 않은 채, 이슬람 피난민들을 무조건 입국시키기로 한다는 것은 미국을 완전히 위험에 놓이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걱정을 털어놨습니다.

다음호에 계속하여 "친이슬람 오바마 정부와 그 위험"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속히 하나님을 다시 이 땅의 주인으로 모시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시편33:12).

##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7면에서 계속〉

단지 안타까운 것은, '밀라노 칙령' 이전과 달리 십자가와 무관하게 걸어가는 성직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들이 가벼워진 십자가조차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복음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2) 성경이 보인다 - 고전 7:17, 20, 24; 눅 9:23-25

성직자로 산다는 것은 큰 결단을 요구한다.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또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할 수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남들에게 그럴싸한 말을 하기 위하여 또는 신학교에 입학할 때 자기 소개서에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을 얻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직업을 소개한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지고서 가는 삶으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이것이 성직자를 향한 부르심이다.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목회의 길이 어려우면 무거워지고, 쉬워지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무겁다. 그래도 항상 짊어지고 가야한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주어진 십자가의 형태와 무게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십자가는 곧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자세를 전제로 한다. 자기를 올바로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십자가를 내려놓게 된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계속〉

KPCA서노회 여선교회 연합회 주최 제39주년 창립기념예배 및 30회 성가의 밤에서 갈보리믿음교회 여성찬양대가 찬양하고 있다

# 제32주년 창립기념예배 및 30회 성가의 밤

## KPCA 서노회 여선교회연합회 주최

해외한인장로회(KPCA) 서노회(노회장 김경진 목사) 여선교회 연합회(회장 김진연 권사)가 주최한 제32주년 창립기념예배 및 30회 성가의 밤이 18일 오후 4시 갈보리믿음교회(담임 강진웅 목사)에서 열렸다.

김경진 목사는 축사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KPCA 서노회 여선교회 회원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이름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헌신예배와 성가의 밤을 통해 노화와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희락이 넘치는 참으로 복된 서노회 여선교회 헌신예배와 성가의 밤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갈보리믿음교회 중고등부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진연 권사의 사회로 시작된 창립기념예배는 여선교회 수석부회장 황명희 권사(나성영락교회)가 기도를 했으며 김경진 목사가 '여성, 복음의 동역자들'(롬 16:1-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직전회장 서숙경 권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강진웅 목사가 축도했다.

예배에 이어 열린 성가의 밤은 이규숙 부회장(새한교회)의 사회로 시작됐다.

나성영락교회(지휘 박윤명), 갈보리믿음교회(지휘 이제형 집사), 성광교회(지휘 변윤선 전도사), 새한교회(지휘 최승재 목사)와 나성영락교회 권인덕, 김필남, 장영숙, 윤혜명 등으로 구성된 하프팀이 출연해 찬양과 연주를 했으며 갈보리믿음교회의 믿음성가대와 나성영락교회 늘푸른성가대(지휘 박명혜 권사)가 찬조출연해 성가의 밤을 빛냈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들이 '여기에 모인 우리'를 부른 뒤 주기도문으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나는 행복한 사람 우리는 가족' 주제

## 물댄동산장애인선교회 창립32주년 찬양과 간증의 밤

물댄동산 장애인선교회(대표 최영희 전도사 이하 물댄동산)는 창립 32주년 찬양과 간증의 밤을 '나는 행복한 사람 우리는 가족'이라는 주제로 17일 저녁 7시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김계용목사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최영희 전도사는 인사말에서 "지금까지 물댄동산 식구들을 지켜주시어 순간순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며, "올 한 해 동안 물댄동산 식구들이 주님께서 허락해주신 목소리와 몸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마련한 아름다운 작품들이 '찬양과 간증의 밤'으로 발표하게 됐다. 지금까지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나성영락교회 소망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허동현 목사(나성영락교회 소망부)가 이사야 43:1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이어 열린 2부 순서는 물댄동산 친구들의 장구연주, 물댄 동산 청년부의 바디워십, 이효상 권사의 간증, 그리고 찬양과난타 시간으로 이어졌으며, 나성영락교회 소망부의 특별공연이 있었다.

마지막은 참석한 자들이 함께 '주 안에 우리 하나'를 부른 뒤 허동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물댄동산 장애인선교회 주최 창립32주년 찬양과 간증의밤에서 참가자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다

#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 킹덤드림 콘서트 미 서부순회, 천관웅 목사 인도

킹덤드림 콘서트가 17일 LA다운타운에 위치한 밸라스코 클럽과 18일 세리토스 동양선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콘서트는 천관웅 목사(한국 뉴사운드교회)와 뉴제너레이션 워십팀이 미국의 영적타락 현상과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17일 오후 2시에 열린 콘서트는 콘서트장인 밸라스코 클럽을 가득 메운 청년들이 천관웅 목사의 찬양인도에 맞춰 마음을 다해 찬양을 불렀으며, 찬양을 통해 부어지는 은혜에 감격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천관웅 목사는 "오늘 우리가 콘서트를 하고 있는 이곳은 클럽으로 평소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곳의 역사를 찾아봤더니 과거에 교회로 사용되던 장소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나니 교회는 텅 비게 되고 결국 술과 춤이 난무한 클럽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천 목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한국교회와 한인교회가 어려운 시기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세상적인 즐거움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미지근한 신앙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미지근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킹덤드림 콘서트는 지난 10일과 11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첫 번째 콘서트를 가졌으며 24일과 25일에는 산호세지역에서 콘서트를 가졌다. 〈박준호 기자〉

킹덤드림콘서트가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밸라스코 클럽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 Refresh, Recharge, Revive, Reconnect

## 코너스톤교회 설립22주년...2015커넥션 행사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 목사)는 2015 커넥션 행사를 15일부터 20일까지 개최했다.

이종용 목사는 "13번째로 시작한 커넥션은 생각을 바꾸고 목회방향을 바꾸고 교회관을 바꿔 건강한 목회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커넥션에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이 Refresh, Recharge, Revive, Reconnect 돼 사역의 현장으로 가게 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코너스톤의 형제자매들은 커넥션을 통해 항상 역사하시는 하나님, 더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니다보면 귀한 목회자들인데 탈진돼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지방교회일수록 평신도사역을 통해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평신도 사역에 대한 개념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 따라서 이분들을 커넥션을 통해 사역은 물론 개인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된다"고 말했다.

코너스톤교회는 지난 18일, 설립 22주년 예배를 가졌다. 이 목사는 "과거에는 설립기념일 맞이 부흥회를 했다. 하지만 부흥회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데 어느 때부터 열매가 맺어지지 못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은 중단해야 하기에 부흥회 대신 커넥션 행사로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커넥션은 코너스톤교회의 모든 사역을 소개하며, 사역자들이 사역에 통해 받은 은혜를 간증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9일부터는 장소를 요세미티로 옮겨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코너스톤교회에서 열린 2015 커넥션 행사에서 이종용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서부교계 게시판

west

### 2015 홀리 리바이벌

미주성결교회 남서부 지방회 주최로 진행되는 2015 홀리 리바이벌이 '거룩한 예수 세대'라는 주제로 10월 30일(금)부터 11월 1일(주)까지 갖는다. 강사는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30일(금) 오후 7시 사우스베이선교교회(담임 조종곤 목사), 31일(토) 오후 6시 임마누엘휄로쉽교회(담임 안충기 목사), 11월 1일(주) 오후 5시 유니온교회(담임 김신일 목사)이다.

▲문의: (310)530-6885사우스베이선교교회, (562)949-8082임마누엘선교교회, (626)858-8300유니온교회

### 제16회 LA기윤실 건강교회포럼

LA기윤실은 제16회 건강교회포럼을 '한인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라는 주제로 오는 29일 (목) 오후 7시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 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아울러 지역 사회 봉사를 위해 일하는 이들을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LA기윤실 사회봉사상'(제4회) 시상식을 함께 갖게 된다. 시상식을 통해 세계선교교회(담임 최운형 목사), 울타리선교회(대표 나주옥 목사), 노숙자의 자립과 재활을 위한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이충남, 방영자 목사 부부가 받게 된다.

▲문의: (213)387-1207, cem_la@yahoo.com

### 안양대학 미주 총동문회 정기모임

안양대학(구 대한신학) 미주 총동문회 정기모임이 10월 26일(월) 오후 5시 평화교회(담임 김은목 목사 2538 W. Pico Blvd, LA, CA)에서 갖는다.

▲문의: (213)923-2223강동균 목사, (562)480-1258신종한 목사

### 남가주든든한교회 찬양의 밤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목사) 제 4회 찬양의 밤이 10월 30일(금) 오후 7시30분에 개최된다. '나는 믿네'라는 주제로 열리는 찬양의 밤에는 경배와 찬양팀, Soli Deo little Singers, 교회 연합성가대, EM 청년 찬양팀이 출연한다.

▲문의: (213)481-2779

### 더텐트 홀리윈 콘서트 & 마당 콘서트

더텐트(대표 다니엘 방 목사)가 주최하는 파킹랏 콘서트가 '홀리윈 콘서트'라는 주제로 오는 31일(토) 오후 7시 가주영어학교(639 S. New Hampshire Ave, LA, CA)에 마련된 특별공연장에서 열린다. 또한 11월 7일(토) 오후 6시30분에는 한인타운 내 마당몰 광장(621 S Western Ave, LA, CA)에서 '더텐트 인 마당(The Tent in Madang)'이라는 주제로 콘서트를 갖는다.

▲문의: (213)999-4909

###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주최 제15회 창작성가의 밤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서병호 장로)가 주최하는 제15회 창작성가의 밤이 오는 11월1일(주일) 오후 6시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에서 열린다. 출연진은 기독합창단(지휘 이경원), 한이름선교합창단(지휘 이경호 목사), LA레이디스 싱어즈(지휘 이종헌), 미주영광교회 성가대(지휘 황현정), Kenosis Chamber Choir(지휘 엘리엇 박)

▲문의: (562)569-3806서병호 회장, (213)235-8972김재숙 작곡분과장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헌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714)521-0991, Fax(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Fax.(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213)388-7101 ,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62)691-0691, (F)(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a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x(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 은 이 예배 : 오후 1:20
영어권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30
주일3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새 벽 기도회: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Fax.(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www.dkpc.org

**동문교회**

담임목사 : 김상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213)483-6625, Fax.(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90057
www.eg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4:0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드 림 교 회**

담임목사 : 정영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새벽5:30(월-금), 6:00(토)
Tel.(626)793-0880, 0200 Fax.(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pcla.org
Tel.(213)381-2202, Fax.(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00(청년)
성인영어예배: 오전 11:00
대학영어예배:오후 1:00
일어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Tel.(949)854-4010 / E-mail: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213)245-4090 Fax.(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후 1:00
목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Tel.(213)380-0071, Cell.(213)215-8523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949)857-9425 / Fax.(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젊은이예배: 오후 6:00
Tel.(213)384-7274, Fax(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www.gracemi.com
Tel.(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Fax(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jc.org

**주님의 제자교회**

(힐링캠프 기도원)
담임목사 : 이선자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저녁기도: 오후 7:30(월-금)
주일예배: 오전 11:00
Cell.(714)220-7660
3026 W. Ball Rd. Anaheim, CA 92804
jesussunja@gmail.com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714)646-9259 Fax.(714)646-9264
16800 Im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lv.com / e-mail:pastor@lacornerstone.com
Tel.(310)530-4040(CH), Fax(310)530-84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장년, 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 "이 땅을 꿈과 희망으로 회복시키소서"

## 2015 서울월드컵경기장 기도대성회 10만여명 간구

"주여 패역한 이 세대를 회복시키소서. 성령이 임재하사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가 16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한 '2015 세계 평화와 한반도 안정, 희망 나눔을 위한 기도대성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함성으로 가득했다. 이 자리에는 세계 100여개 나라의 크리스천 리더들과 여의도순복음교회·지교회 교역자와 성도 등 10만여명이 참석해 세계 평화와 국내 경제·사회 위기 극복,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

기도대성회 1부는 '세계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구하는 예배로 진행됐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를 제목으로 개회설교를 한 이영훈 목사는 "염려는 기도를 방해하고 영적인 힘을 약화시키며 이로 인해 감사와 행복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기쁨과 행복이 있다"며 "승리하는 신앙의 첫 번째 비결은 염려하지 않고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목사는 "염려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라며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환난의 문, 고통의 문, 질병의 문을 열 수 있는 만능열쇠이며 기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위기는 없다"고 권면했다.

란지트 아브라함(인도 신인도하나님의교회), 해롤드 카바렐로스(과테말라 엘샤다이교회), 유키오 후나쓰(일본 가나자와그리스도교회) 목사 등 세계교회 지도자들도 설교자로 나섰다. 특히 '주여, 조국의 죄를 용서하소서. 한국의 여러분, 일본을 용서해주세요'를 제목으로 설교한 유키오 목사는 일제 강점기에 벌어진 만행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기도대성회 참석자들은 밥 로저스(미국세계기도센터), 프린스 구네라트남(말레이시아 갈보리교회) 목사 등의 인도에 따라 남북의 통일과 번영, 세계교회의 부흥을 위해 특별기도했다. 2부 '나눔의 희망을 전하는 장'에서는 시리아 난민과 북한동포 등 어려움에 처한 국내외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는 3부 순서인 '꿈과 희망을 전하는 장'의 주 강사로 나서서 '하늘을 쳐다보라'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 목사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하늘을 보게 하셨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을 생각하며 꿈을 갖고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하셨다"며 "우리도 이 땅에 만연한 물질주의와 불신의 장막을 걷어내고 하늘을 쳐다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목사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늘은 곧 성경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별처럼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며 "그 약속에 대한 꿈을 꾸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의 메시지 선포 후 참석자들은 민족 복음화와 평화통일, 경기활성화와 경제 부흥,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력 회복, 복음 전파와 세계선교 사역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한 뒤 기도대성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 교단장회의, "한기총-한교연 통합에 힘모으자"

## 복원 후 첫 상임회장단 모임...12월 임원회 통해 본격 활동

'한국교회 교단장회의'는 16일 오전 코리아나호텔에서 첫 상임회장단 모임을 갖고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교단장회의는 지난 1일 복원 총회를 갖고 다시 출범했다.

이 자리에는 복원 총회에서 상임회장단으로 세운 7개 교단 중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통합, 대신,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등 6개 교단 총회장이 참석했다. 유일하게 참석하지 못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는 위임의사를 밝혔다. 특히 복원 총회 때 불참했던 박무용(예장합동) 장종현(예장대신) 이영훈(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총회장이 참석해 교단장회의에 힘을 실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교단장회의가 각 교단 총회장들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박무용 예장합동 총회장은 "일치까지는 어렵더라도 연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부활절연합예배 준비, 동성애 문제 대응 등의 활동을 통해 교단들이 연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무적인 부분은 총무단에게 맡기고 총회장들은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채영남 예장통합 총회장은 "교단장회의를 부활시켜 다시 조직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다른 연합단체가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친교와 논의를 통해 연합활동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모임에서는 교단장회의의 역할론과 더불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의 통합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지난 7일 국민일보와 C채널이 공동주최한 4개 교단(예장합동·통합·대신·고신) 총회장 특집좌담에서 한기총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던 장종현 예장대신 총회장이 말문을 열었다. 장 총회장은 "한기총과 한교연이 하나 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교단장들의 역할"이라며 "교단장회의가 두 연합기관의 통합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한기총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이영훈 총회장은 "연합기관 통합을 위해 다락방 이단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하는 의견과 이단 문제 해결을 위해 큰 교단이 한기총에 들어오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공존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다락방 류광수 목사도 연합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단장회의는 오는 12월 2일 첫 임원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 예장합동 소래노회, 77년 만에 신사참배 회개

## 1938년 비극적 역사 참회…결의 취소안 만장일치 채택

조선예수교장로회는 1938년 9월 10일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열린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다. 당시는 장로교의 교파가 갈라지기 전이었다. 무장경관들이 예배당을 에워싼 가운데 여러 선교사들이 일어나 "불법결의"라고 외쳤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장로교회가 일본 태양신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은 비극적인 순간이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소래노회(노회장 김경철 목사)는 15일 서울 구로구 오리로 21세기드림교회(이성용 목사)에서 정기노회를 갖고 77년 전의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했다. 1938년 장로교 총회가 열리기 두 달 전에 장로교 8개 노회가 신사참배 결의에 앞장선 것에 대해 회개한 것이다.

소래노회는 지난해 3월 신사참배 회개 등을 주장하며 황해노회에서 분립한 신설 노회다. 노회 차원의 공식적인 신사참배 결의 취소는 처음인 만큼 다른 노회나 교단 전체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신사참배 결의 취소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 신사참배의 죄를 통회 자복하는 취소선언문을 낭독했다. 경건하게 성찬식이 진행되자 눈시울이 붉어지는 목회자들이 잇따랐다.

소래노회 신사참배 취소 및 회개위원장 박세환(백승교회) 목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할 우리 노회가 일제의 강요에 무릎을 꿇고 신사참배를 받아들였다"면서 "장로교회는 일제 군국주의 이념을 선전하는 나팔수가 됐고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아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당하게 했다"고 고백했다.

소래노회는 오는 20일 경기도 용인 총신대 신학대학원 소래교회에서 열리는 '소래노회의 날' 행사에서도 신사참배를 회개하고 일본 야스쿠니 신사의 문제점 등을 담은 소책자를 발간·배포한다. 12월 8일에는 소래교회 앞마당에 '신사참배 취소 및 회개 표지석'도 설치할 계획이다.

한국교회의 신사참배 참회는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2년 6월 18일 한국교회 지도자 한경직(1902~2000) 목사의 고백은 한국교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 수상을 축하받는 자리에서 그는 "일제 때 신사참배를 행했으나 여태껏 참회하지 않았다"면서 "반세기 전에 지은 우상숭배의 죄를 참회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노(老) 목회자의 죄책고백은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가슴속에 각인됐다. 2006년 1월에는 기독교대한복음교회가 "초대 감독이었던 최태용 목사가 창씨개명을 하고 친일 잡지에 친일 논설을 기고했다"며 교단 중 처음으로 친일행적을 반성했다. 2007년에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가 신사참배에 대해 사과했다. 2008년 예장합동과 통합, 합신, 기장 등 4개 교단은 장로교단분열 60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연합예배를 갖고 신사참배 참회기도를 드렸다.

# 기감 "이단 척결"…이단경계주간 홍보 강화

## 이단 분별과 대처방법 등 경각심 제고·예방 자료 제작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올해 처음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이단경계주간을 앞두고 이단 척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단경계주간을 홍보하는 각종 자료를 제작·배포하며 이단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기감이 지정한 이단경계주간은 종교개혁주일인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다.

기감 교육국은 19일 온라인을 통해 이단경계주간을 홍보하는 동영상 자료와 이단 분별 매뉴얼 등 다양한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목회자나 평신도는 기감 교육국 홈페이지(kmcedu.or.kr)에 접속해 '이단대책' 코너에서 자료를 내려받으면 된다.

전용재 기감 감독회장은 10분46초 분량의 이단경계주간 홍보 영상에서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건 신흥 이단"이라고 강조했다. 전 감독회장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이단의 공격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후세에 물려주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기감이 배포한 자료 중에는 목회자들이 이단경계주간에 참고할 수 있는 설교문도 있다. 설교문은 기감 이단대책위원장인 이종영 목사가 집필했다. 이 목사는 '이단을 조심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설교문에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등이 발흥한 배경을 설명하고 이들 종파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목사는 "통계에 따르면 이단의 규모가 약 200개 단체 2552개 교회로 늘었다고 한다"며 "수적으로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포교활동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모호해져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이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면서 "이를 부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요 이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가 믿는 복음에 무언가를 추가하거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거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다고 말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며 "교회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가장 강력한 이단대처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감은 이단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자료도 게시했다. 교육국은 홈페이지에 하나님의교회 신천지 등의 포교 방법과 대처 방법이 담긴 매뉴얼을 탑재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단 관련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아 지인들에게 배포·공유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교육국이 발간한 '이단 사이비 가이드북'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기감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31회 총회에서 하나님의교회 신천지 등 9개 단체를 이단으로 지정했다.

# 예장대신 잔류측 박종근 총회장

## 속개 총회서 사임의사 피력

박종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잔류측 총회장이 19일 경기도 포천 내촌면 베어스타운에서 개최된 제50회 속개 총회에서 사임의사를 밝혔다.

목사와 장로 총대 400여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박 총회장은 "지난달 14일 총회장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숨이 막힐 정도로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게 힘들고 어려웠다"면서 "평생 단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총회장이라는 자리를 맡으면서 이 일을 계속했다간 교단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고 교단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안양대 교수와 신대원장을 지낸 박 총회장은 "그동안 후학을 길러내는 데 주력하고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면서 담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달려왔다"면서 "어찌됐건 총회장은 제게 맞지 않는 옷이다. 여기까지만 총회장 임무를 하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총대들은 박 총회장의 갑작스런 사퇴 발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회를 선언했다.

한편 김동성 노회수습분과장은 "1743개 교회 중 702개 교회가 잔류하고 1041개 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과의 통합·중립의사를 밝혔다"고 보고했다. 교단은 전년 대비 61%가 삭감된 3억1550만원의 예산을 확정했으며 총무 1명, 사무국장 1명, 여직원 1명으로 총회본부 조직을 개편했다. 총대들은 제49회기 때 내려진 직무정지와 제명, 면직, 행정심판 결정을 모두 취소시켰다.


#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날짜** 2015년 10월 22일(목) ~ 10월 31일(토)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문의** 213.382.1450

**장소**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한인타운 내 카타리나와 8가 코너에 있습니다

**강사** 조성근 목사 gstcenter98@gmail.com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방송설교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 투 브 http://www.youtube.com/user/cbssolomontv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검색

**2015년 부흥성회 일정**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 1일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 | 1 ~ 3일 예수비전교회(박창흥목사) | 6 ~ 8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 1 ~ 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1일 ~ 4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강화) | 6일 ~1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 3일 ~ 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 6일 ~ 8일 청운교회 (강대석목사) | 4일 ~ 7일 성동중앙교회 (이인호목사) | 1일 ~ 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 1일 ~ 2일 강서제일교회 (전종남목사) |
| 1 ~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기도성회 | 2 ~ 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5일 총신대학교 심령수련회 (길자연총장) | 13 ~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 18 ~ 2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 8일 ~1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 19일 청운교회 (강대석목사) | 9일 ~ 12일 나사렛성결교단 연합성회 | 14일 ~ 17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 11일 ~14일 일심교회 (김교문목사) | 8일 ~11일 성남성결교회 (이호연목사) | 7일 ~10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
| 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 9 ~12일 GST 신학생훈련(34차) | 9 ~11일 (합동)태백시찰 연합성회 | 20 ~ 22일 안산 시민교회(이성관목사) | 24 ~ 27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 15일 ~17일 온양감리교회 (노광현목사) | 20일 ~23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 17일 ~20일 GST 신학생훈련 (35차) | 20일 신모철 철야기도회 (GST) | 19일 ~22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 15일 대한교회 (윤영민목사) | 13일 ~20일 GST 미션리서치 (캠보디아) |
| 3일 이천강성교회(이철호목사) | 15일 사랑스런교회(배만석목사) | 16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 23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채플 | 31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 21일 예우림교회 (류병희목사) |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 (GST) | 30일 신모철 철야기도회 (GST) | 21일 ~23일 풍산교회 (박경순목사) | 22일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 16일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 27일 신모철 철야기도회 (GST) |
| 8일 평화의동산 기도원(미종진목사) | 16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 23 ~26일 갈멜산강화금식기도원(강화) |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 | 22일 ~24일 (합동) 남수원노회 교사강습회 | 27일 ~29일 천마산기도원 (옥광석목사) | | | | 22일 대한교회 (윤영민목사) | 28일 ~ 3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
| 11~ 13일 (합동)동인천노회 남부시찰 재직부흥회 | 22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 29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 27 ~ 29일 화평교회(이재옥목사) | | 25일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 | | | | 27일 ~29일 드림교회 (장순직목사) | 3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송구영신예배 |
| 16일 과천교회(주한산목사) | 23 ~ 25일 동춘교회(윤석호목사) | | | | | | | | | 29일 신모철 철야기도회 (GST) | |
| 18일 예복교회(소진우목사) | 27일 백석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 | | | | | | | | 30일 강서제일교회 (전종남목사) | |
| 22~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 | | | | | | | | | |

## 선교 편지

### 멕시코

안녕하세요. 그동안 주님의 은혜가운데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며 지난 3개월 동안의 멕시코 성경 묵상 사역 소식을 간략하게 전해드립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성경 묵사 사역**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보스턴한인장로교회 선교팀과 함께 도미니카 선교여행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보스턴 한인교회에서는 치과, 의료, VBS를 준비하셨고, 저희는 현지 목회자 및 리더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 묵상 세미나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고 지속적인 도움을 요청하셔서 다가오는 11월 16일 부터 20일까지 두 번째 방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미니카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성경을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이 다시 모여서 말씀을 통해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집회(Proyecto Mi Identidad en Cristo) 7월 18일, 8월 15일**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진행될 청소년 프로젝트의 주제는(Mi Identidad en Cristo) "그리스도안에 나의 정체성"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바로 세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들의 삶을 그 목적을 위해 헌신 할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세 차례 집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한 사역임을 확신 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0월 17일, 12월 5일 집회도 복음을 듣고 그 선포된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멕시코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년 3월에 계획하고 있는 수련회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박3일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Piña Veracruz 8월 21-22일**

베라크루즈 삐냐 마을은 멕시코시티에서 약 280km 떨어진 곳이지만 차를 타고 6-7시간 가야 하는 산골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Juan 목사님 부부를 알게 된지 6개월 정도 되었고, 지금까지 꾸준히 성경 묵상을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열심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세미나에 오신 성도님들과 성경 묵상 실습을 하려고 모였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는 일조차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라크르즈 뿐만 아니라 여러 곳곳을 다니다 보면 글을 배우지 못해 성경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앞에 서면 성경 묵상을 가르치고 보급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글을 알지 못해 성경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현지에서 사역 하고 계신 목사님들과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역자들을 통해, 또는 다른 많은 방법들을 통해 끊임없이 선포되어 글을 읽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들려지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에스라 성경학교 개강**

지난 8월 3일 2015년 두 번째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등록한 학생들은 모두 36명이며 현재 두 과목(성경해석학과 이스라엘 역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멕시코에 에스라 성경학교를 세우게 하신 목적을 잊지 않고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에스라 성경학교가 시작한지 벌써 4년째 접어드니 전에 없었던 어려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4년째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1학년 학생들과 같은 수업을 듣는 것이 그 중 하나입니다. 반을 나누는 것이 장소 면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를 위한 적합한 장소를 찾는 중입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ctopan 지역 Lugar de su presencia교회 훈련 및 말씀 사역**

Lugar de su presencia 교회는 Hidalgo 주 Pachuca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에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카톨릭교회에 영향력 아래 있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지난 사역 소식지에 전해드렸습니다. 이곳에 예배당을 짓고 올해 초부터 공식적인 모임이 시작됐지만 사람이 기대하는 것만큼 큰 변화나 숫자적인 성장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현재 한 달에 두 차례 방문을 하고 있고, 그 중 한번은 공예배가 아닌 다른 날을 정하여 리더들을 위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때를 훈련의 기회로 삼고 지도자 한 사람 한사람이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기 세미나, 리더 훈련, 성경묵상 훈련**

멕시코 성경묵상사역 중 정기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세미나 에는 에스라 성경학교 학생들도 참석하지만, 여러 곳곳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중에는 목회자, 교회 리더,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 학생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함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달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도 바뀌고 주제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 받는 일은 매달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세미나도 또 한 번의 행사로 마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들을 위해 묵상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준비 되어진 리더들 가운데 자진하여 개인묵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역자 수련회**

지난 9월 29-30일 1박2일 동안 2015년 상반기를 정리하며 올해 남은 시간과 내년계획을 위해 리더수련회를 떠났습니다. 함께 팀으로 사역하고 있는 리까르도 목사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고, 저희 부부와 나훔 목사님 부부, 호엘 목사님 부부를 비롯한 리더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역을 계획하고 새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리더들의 한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멕시코 리더양육과 성경묵상 사역을 위해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박지만, 한여정 선교사
Email: parkchiman@gmail.com

# 제 11회 글로벌국제선교대회

## 24일 오전 10시-25일, CENTRAL Baptist Church "Declare His glory among the nations " 주제

GIM(Global International Missions, 대표 정윤명 목사)가 주최하는 제 11회 글로벌국제선교대회(대회장: 정윤명 목사, 월넛크릭G.I.M교회 담임)가 ALAMEDA에 위치한 중앙침례교회(CENTRAL Baptist Church, 담임 Stephen Jones 목사)에서 오는 10월 24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과 25일(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열리게 된다.

"Declare His glory among the nations"(시96:3)라는 주제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흑, 백인), 중국, 러시아, 루마니아, 일본, 인도네시아, 태평양 아일랜드, 몽골, 중남미, 에티오피아, 라오스, 타이랜드, 캄보디아,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버마 등 이스라엘(Jewish Messianic) 등 35여 다민족이 모여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위한 국제선교대회를 갖게 된다.

이틀간 대회에서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 베이 지역 목회자들이 Chain of Union Prayer(합심통성기도)를 갖게 되며, 여러 민족 1세와 2세가 함께 어우러지는 연합찬양 및 각 민족전통 Worship Gospel Dance축제가 있게 된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동유럽과 아프리카, 라티노, 아시아를 비롯한 10개 각 민족의 선교 보고발표, 주강사 메시지와 Invitation(결신자 초청), 그리고 미국과 열방의 부흥을 위한 다민족의 패널 등이 있게 된다.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Faith Kim 교수(골든게이트신학교 다문화교육학 명예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국제 패널에서는 "All nations be transforming through Missions"의 주제를 갖고 선교와 목회, 신학을 대표하는 미주지역의 8명의 페널리스트들이 선교를 통한" 미국과 열방의 회복"에 관한 패널을 갖게 된다.

대회기간 한인교회 측에서는 북가주의 Silicon Valley선교회(대표 정관봉 목사)의 선교합창단 과 북가주 크로마하프 팀(단장 강영애 집사)도 참여하게 된다.

대회 목적은 미국에 같이 어울려 사는 다민족의 유대와 조화로운 협력과 연합을 통한 성공적인 선교 사역과 미국과 열방의 부흥을 추구하는 것이다.

▲연락처: (925)639-9527, 988-9191 www.VisionGIM.org

〈기사제공: GIM〉

# 이노비, 음악, 미술치료 프로그램 시작

이노비가 10월 12일부터 음악치료, 14일부터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음악, 미술 치료 프로그램은 이노비가 9년간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펼쳐왔던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한 아웃리치 콘서트 프로그램에 이어 9년 만에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참가자가 음악, 미술치료를 통해 직장생활과 개인생활의 균형과 정신적으로 보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맨해튼에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최초의 미술, 음악 치료 클래스로 그 의미가 크다.

음악치료를 맡아 진행하는 앤젤 박 음악치료사는 현재 3년째 이노비의 프로그램 개발 디렉터를 맡아 이노비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몰로이 대학에서 음악치료로 석사를 받았다. 현재 뉴욕일대의 여러 병원에서 음악치료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전문 음악치료사이다. 미술치료를 맡아 진행하게 된 이수진 미술치료사는 FIT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호프스트라 대학에서 미술치료로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병원에서 미술치료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5년 여간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미술치료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참가비는 한 회당 $20로 (총 10회) 기존의 음악, 미술 치료 그룹 클래스보다 90% 정도로 저렴하여 대학생, 직장초년생들도 부담 없는 가격으로 책정되었다.

프로그램 신청과 자세한 프로그램 문의는 이노비 오피스(212-239-4438)나 enobinc@gmail.com으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이노비〉

사람과 교회와 선교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필독서!

바로 그 교회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하는 교회 세우기 목회 컨설팅!
김성진 지음 / 416면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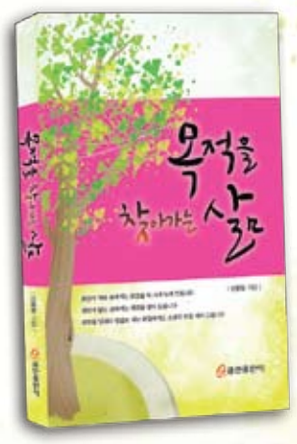
중소형 교회가 많은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그 지역에 맞는 〈바로 그 교회〉를 세워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 중소형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는 최상의 가이드북.

중소형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전제로 목회자에게 목회의 타깃을 명확하게 하고, 목회의 ABCDE를 강화하고, 전략적 사고가 매우 중요함을 역설한다.

이슬람 끌어안기
매우 균형감 있고 현실적인 무슬림 선교의 필독서!
조르주 후스니 지음 / 신동철 옮김 / 280면 / 12,000원

현재 미국 내 무슬림, 그 중에서도 미국으로 유학 온 이슬람권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 사역을 수십 년째 해온 베테랑 사역자가 최근에 펴낸 첫 번째 저서이다.

대한민국으로 몰려오는 외국인 근로자 20퍼센트는 아시아의 이슬람권 출신인 현실 속에 국내 무슬림 전도 사역에 영감과 도전을 줄 특별한 책이다.




목적을 찾아가는 삶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유인 되기!
안종필 지음 / 264면 / 12,500원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목적을 찾아가려면 필수도구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목적을 방해하는 장애물도 알고 있어야 한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출발선에서 머뭇거리며 고민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한 두 번쯤 일을 시작했다가 실패하여 좌절한 이들, 또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찾아 줄 책이다.

쿰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 쿰란,쿰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qumran.co.kr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6 • TEL : 747-1004(대)

# 하나님의 구원계획 (12)

**라흥채 목사**
(뉴욕제자들교회 담임)

9) 다니엘 제9장: 다니엘의 칠십이레 이상

포로생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다니엘의 회개기도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칠십이레의 환상에 관한 내용이 있다. 칠십이레의 환상은 이스라엘의 포로귀환과 성 중건을, 예수그리스도의 성육신, 로마 장군의 성전 파괴와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스라엘의 미래와 그리스도의 재림전에 있을 종말적인 사건들을 내포하고 있다.

① 칠십년간 바벨론을 섬기리라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칠십년 만에 마치리라"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여호와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 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칠십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단 9:2; 렘25:11-12; 29:10-14).

다니엘은 이사야서를 읽고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부음을 받은 고레스왕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서 항복하게 하며 열국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리게 하리라(사45:1) 고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를 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고(단9:5), 또한 그는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하여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죄악된 행실을 고백하였다.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단9:11)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맹세(신28:48-57,63-67)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생활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징벌임을 깨닫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크게 은총을 입은 자 라고 하시고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 찌니라 고 하신다.

■ 이스라엘을 칠십이레로 기한을 정하심(단9: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단9:24).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기도했을 때 다니엘에게 그 이상을 주셨다. 바로 그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계획을 인간의 시간표로 칠십이레로 구원계획 즉 그 역사를 정하셨다. 그때는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이 없는 곳으로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다(계11:15).

■ 칠십이레의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이레와 육십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 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단9:25).

BC 605년부터 하나님의 징계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간 후 칠십년이 찬 후에 이사야 45장 1절의 예언대로 1차, 2차의 포로귀환할 때 다니엘 9장 25절의 말씀대로 칠 이레에 성 중건을 시작은 했으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1차 포로귀환 때에는 성 중건을 시작하지 못하고 2차 포로귀환 때에 고레스왕의 칙령으로 BC 457년에 성 중건을 시작하여 3차 포로귀환 때에 느헤미야와 말라기 선지자가 성벽을 완전히 완성하여 49년에 이루어졌다(스6:15).

"다리오 왕 육년 아달월 삼일에 전을 필역 하니라"(스6:15).

■ 육십이 이레와 육십구이레 후에 그러니까 62이레+7이레=69이레에 기름 부은 자가 나오고 69이레 후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

"육십이 이레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 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 되었느니라"(단9:26).

■ 한 이레(이 때는 대 환란의 7년간의 기간이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단9:22).

69이레 후 한 이레가 도래하면 대 환란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열나라(유럽 열나라 공동 국가들) 중 한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한나라에서 나오는 한 왕이 적그리스도이다. 이 적그리스도가 법을 변개하고 세상을 퇴폐하며 이 세상을 망하게 할 때 주님은 오신다. 주님이 재림 하시게 되면 세상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다(계11:15).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로 70이레로 정하신 다니엘의 70이레 이상이다.

10) 다니엘 제10장 한사람에 관한 이상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으로, 바사제국의 통치 때부터 세상 끝 날까지 전개될 이스라엘의 운명 과 세계의 역사를 계시하고 있다. 바사왕 고레스 3년(BC 536년경)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 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이레 동안을 슬퍼하며"(단10:2) 여기서 세이레는 3주간을 의미한다. 5절에서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이 한사람은 천사 혹은 천사장인 미가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나 우선 정금 띠를 띤 모습을 추론 하건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계시록 1장13절의 '가슴에 금띠를 띠고' 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았다.

다니엘 10장 6절과 7절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더 기록하려고 한다.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단10:6-7).

그러므로 나만 홀로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한손으로 나를 만질 때 내가 떨더니 그가 나를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노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이십일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사실 바사국군, 즉 바사국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을 가리킨다. 사탄은 어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였으나 이스라엘의 군인 미가엘이 도우러 왔을 때 비로소 물러섰다(21절). 이 사건은 가시적인 세계 배후에서 또 개인적인 배후에서 영적 전투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엡6:11-2).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종이 어찌 능히 내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가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아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들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군 미가엘 뿐이니라.

다시 다니엘 10장 20절의 말씀에서도 바사군과 헬라군이 이를 것을 말했다. 세상민족과 열왕 들이 사탄 세력의 지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함을 나타낸다. 다니엘 10장 21절에 나오는 진리의 글도 세상에서 전개될 역사와 심판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의 영적의미는 이 세상 어느 누구나 영적전쟁에 임하고 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힘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끝난다(계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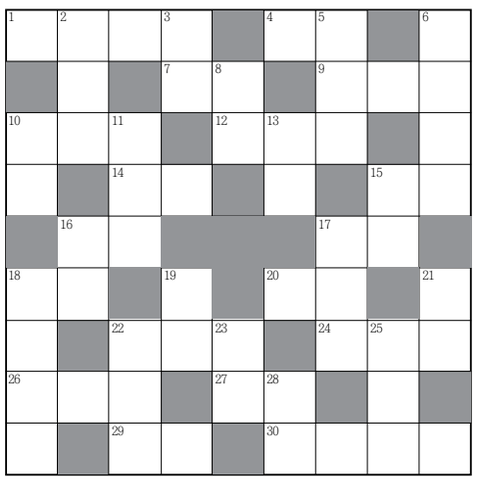
**칠십이레의 환상은 이스라엘 포로귀환과 성중건, 예수그리스도의 성육신, 로마의 성전파괴와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스라엘 미래와 그리스도 재림전 종말적 사건 내포**

▲이메일: Gpscenter@gmail.com

〈다음호에 계속〉

## 십자말 • Cross Word (102)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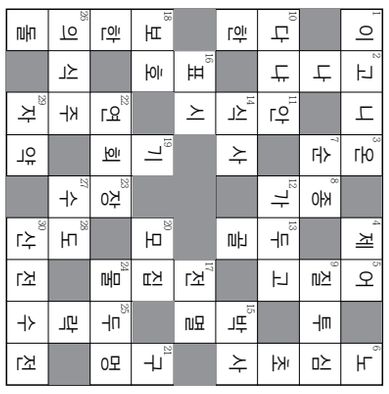
**<가로 푸는 열쇠>**

1.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시에 이 성에서 전도하여 많은 신도를 얻었다(행14:1).
4. 통제하여 조정함(잠27:16).
7. 순순히 복종함(롬5:19).
9. 시샘하고 미워하는 마음(민25:11).
10. 팔레스틴에 있는 땅인데,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왕명을 받고 인구조사차 방문한 바 있다(삼하24:6).
12. 일정한 곳에 넣어 자유를 구속하다(레24:12).
14.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일(룻2:14).
15. 가장 높은 학위. 닥터(단2:24).
16. 나타내 보임(욥36:33).
17. 모조리 망해 버림(수2:10).
18. 잘 돌봄(전7:12).
20. 희망자를 널리 모음(딤후2:4).
22. 파티를 주최하는 자(요2:8).
24. 물을 넣는 큰 통(왕상7:38).
26. 인간 생활의 세 가지 요소인 옷과 음식과 주택(상식).
27. 물 길(왕하18:17).
29. 큰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기색이 평상시와 같이 침착함(욥40:23).
30. 세상의 온갖 고초와 난관을 다 겪어 봄(고사성어).

**<세로 푸는 열쇠>**

2. 레위인으로, 성전에 드리는 예물과 십일조를 받아 주관하던 사람(대하31:12).
3. 성질이 온화하고 순함(사40:11).
5. 마음이 너그럽고 부드러우며 착하다(시112:4).
6. 애를 쓰며 속을 태우는 것. 노○초○(고사성어).
8. 한 문중에서 맏이로만 이어 온 큰 집(대상23:24).
10. 에브라임족에서 난 한 가족(민26:35).
11. 안식할 때(레26:35).
13. 머리 뼈(삿9:53).
15. 짓 두드려서 없애 버림(렘11:19).
16. 겉으로 나타낼 이름(출3:15).
17. 전당물(신24:12).
18. 베냐민지파의 한 경계선인데 르우벤의 자손의 경계선(수15:6).
19. 찬스(고후11:12).
21. 뚫어지거나 파낸 자리(계9:2).
22. 여러 사람 앞에서 음악을 들려주는 사람(상식).
23. 군사를 거느리는 우두머리(대상13:1).
25. 논, 밭을 세는 단위(레 27:16).
28. 한국 애국지사 안창호 선생의 호(상식).

**십자말 정답**




# 2015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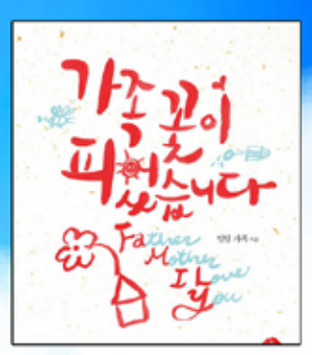
해외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본 협회는 아래와 같이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1. 대 상 :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및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 법 :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Letter 또는 A4 size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며, 제출마감일은 **2015년 10월 15일** 미서부시간 오후 5시까지입니다.
3. 제출처 :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4. 시 상 :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 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주최 :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박재호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로스앤젤레스, 미국)
미주복음방송(로스앤젤레스,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NY, LA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크리스찬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찬 월드(토론토, 카나다)
크리스챤 리뷰(시드니,호주)
크리스찬 포스트(토론토, 카나다)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로스앤젤레스,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로스앤젤레스,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로스앤젤레스, 미국)

추천도서



입양가족, 홍성사

데이빗 플랫 저, 두란노

일리스터 맥그래서, 성서유니온

김미진 저, 규장

데이비스 키네먼 저, 국제제자훈련원

게리 채프만, 생명의말씀사

후원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96)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20)

우리는 지금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기초들 중에서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성경적" 기초들에 대해 이미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그 핵심적인 "신학적" 기초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4가지의 신학적 요소들, 즉 성경의 권위(Biblical authority), 회심의 필요성(the necessity of conversion),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the redemptive work of Jesus Christ), 그리고 개인적 경건 혹은 영적 성숙(personal piety or spiritual formation)을 중심으로, 그 신학적 기초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며, 지난 이야기들에서 먼저 "성경의 권위," "회심의 필요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리고 "개인적 경건 혹은 영적 성숙"과 관련하여 일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공동체와 사회에 선한 기독교적 영향력 발휘하기까지 적용돼야
## 지, 정, 의 실천적 부분의 교육이 통합적이고 동시에 이뤄져야

지난 이야기에서 개인적 경건과 영적 성숙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여 할 두 가지 측면(첫째, 개인적 경건 및 영적 성숙이란 본디 감성과 지성이 균형을 이루어가고 또한 실질적인 실천들이 함께 개발되어져 가는 과정이며 또한 그리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둘째로 개인적 경건 혹은 영적 성숙이란 개인적 차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그 중, 첫 번째 측면에 대해 논의하면서 "(1)지성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의 종합적 균형을 이루는 것, (2)균형 잡힌 신앙적 내용을 삶에서 적용하고 녹여내는 실천을 일구는 것, 그리고 그리하여 (3)지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실천적 부분이 통합을 이루는 것"이 개인적 경건 및 영적 성숙과 관련된 우리 교회 교육에서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따라서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한 후, (1)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위의 (2)와 (3)에 대해 자세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밝힌 바대로 개인적 경건과 영적 성숙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위의 (1)에 해당하는 "지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이 균형을 이루는 것"은 현재 다소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꼭 필요하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적, 감정적 균형을 이루었다고 해서 개인적 경건과 영적 성숙을 위한 교육이 다 완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보다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위의 (2)에서 언급한, 바로 "실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의 개인적 경건 및 영적 성숙을 위한 교육에서는 사실 현저하게 많이 부족한 형편이지요. 사실, 실천이 부재한다면 이는 제대로 된 개인적 경건, 혹은 영적 성숙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실천을 일굴 수 있는 교육이 아니라면 이는 제대로 된 개인적 경건 및 영적 성숙을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실천"이라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의 내용을 삶에서 적용하고 녹여내는 그 실천이라는 것은 성경읽기, 성경 공부, 신앙서적 읽기, 기도생활, QT생활, 기도회, 수련회 및 부흥사경회에 참석하기 등과 같은, 우리가 그 교육과정에서 개인적 경건을 훈련시키고 영적 성숙을 독려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러한 교육적 실행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경건 훈련을 위한 실행들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실행들을 독려하는 교육도 당연히 해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실행들을 균형 있게 경험하고 실천하도록 격려하고 지도함으로서, 지체들의 경건성과 영성이 지적인 측면과 감성적 측면에서 균형 있게 성숙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신앙의 내용을 삶에서 적용하고 녹여내는 실천이란 바로 위와 같은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 성숙된 지체들의 신앙과 영성의 내용들이 그들의 일상적 관계들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사회와 세계 속에서, 그 관계들에게 그리고 그 공동체와 사회에게 선한 기독교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까지 실질적으로 발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례를 들어 어떤 장로님의 영성이 열심으로 임해 온 개인적 혹은 교회적 경건훈련 등을 통해 지적, 감정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진정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새벽기도도 열심히 참석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 모범적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실제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신앙적 색깔을 기준으로 삼아 남의 신앙을 판단하고 자신을 따르도록 강요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적 색깔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는 전혀 없이 말입니다. 이는 그가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전혀 녹여내고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의 권위주의적이고 판단적인 자세는 그가 속한 공동체나 보다 넓은 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기본적 내용은 희생과 섬김 그리고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지적 감정적 균형을 이룬 영성의 성숙은 반드시 그 성숙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 속에 녹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실제적인 실행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많이 부족했지만 이제라도 이러한 실천을 향해 우리 교육 사역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만큼 더욱 더 실질적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우리 지체들이 이를 확실하게 인지하도록, 또한 정말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독려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부분과 감성적 부분이 균형을 이루는 개인적 경건과 영적인 성숙의 내용이 그 삶에 의해 증거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내용이 사랑이라면 그 삶도 사랑이어야 하며, 그 내용이 진실함이라면 그 삶도 진실함이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는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개인적 경건 및 영적 성숙을 위한 교육이 전면적으로 재고되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위의 (3)에서 언급한 "지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실천적 부분이 통합을 이루는," 바로 그러한 모습의 개인적 경건 및 영적 성숙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1)과 (2)에 대한 논의들은 사실 우리 교회의 교육적 노력들이 (3)에서 밝힌 지, 정, 의가 통합된 경건성 및 영성을 계발하는 교육으로 향해 가는 단계들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

〈16면으로 계속〉

##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 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삼상16:12-13)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늘 눈여겨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감추고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내셔서 크게 쓰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높이실 것이니까 오늘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하나하나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형님들이 치던 양까지 맡겨놓고 갔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불평없이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돼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를 하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 화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삼상16:13)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윗이 드디어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무를 맡기기 위해서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이 직함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왔다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그냥 사명만 주시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사명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답게 제사장답게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제자로써 살게 하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 수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삼상16:14-16)

오늘 살펴볼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쓰시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을 때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는 성령이 떠나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버리시니까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나의 죄를 시인하고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 때부터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성령께서 24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도우십니다.

### 목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삼상16:18)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구체적으로 인정받고 존경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일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호기와 무용"이라는 뜻은 "능력있는 용사"로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오면 그냥 쳐 죽인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용사의 모습입니다. 또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는 "매사에 분별력 있는 말을 하는 사람" 즉 말을 신중하고 현명하게 하는 아름다운 사람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담대함과 매사에 지혜로운 말과 더 나아가서는 내적으로 겸손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입니다. 아멘!

### 금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더라(삼상16:19-23)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성도들은 악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악신을 떠나게 하고 사람을 상쾌하게 치료합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최종 통보를 받은 후 사기가 저하되고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니까 자신을 억누르는 두려움과 고통이 그를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부른 것입니다. 다윗은 평상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악신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겁을 먹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악신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치료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 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하니라(삼상17:1-11)

본문은 블레셋 군대들이 또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양 군대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용사 골리앗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대치 중에 양군 사이의 힘의 균형은 금장 깨어지고 맙니다. 이제까지는 늘 즉각적으로 공격해왔던 블레셋은 아주 희안한 방법으로 사울왕과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씩 서로 붙어서 지는 쪽이 이긴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자"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깨어있지 않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마치 블레셋과 같고 골리앗과 같습니다. 적들이 아무리 쳐들어 와도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한 항상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 구 독 신 청 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 1년 구독료 | | | | |
|---|---|---|---|---|
| | 미 국 | $100 | 유 럽 | $190 |
| | 캐나다 | $110 | 남 미 | $190 |
| |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 아프리카 | $190 |

| | |
|---|---|
| 신 청 유 형 | ☐ 본인구독<br>☐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
|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 한 글 : 목 사 ☐<br>영 어 : 평신도 ☐ |
| 배 달 주 소 | |
| 전화/Fax | ( )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
| 받는분 이름 | 한글 영어 |
| 전화번호/Fax | ( ) ( ) |
| 배 달 주 소 | |
| 교회/기관명 | |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GGU
학사, 석사, 박사학위과정

학사: 신학, 기독교교육.
석사: 다문화, 영어교육, 상담학, 교회음악, M.Div,
박사: D.Min, 다문화, 교회음악, 크리스챤리더십박사

1). 저렴한 학비, 통신, 온라인, 집중강의, 등을 통한 학점취득
2). 미국 초교파적인 국제복음주의협회(IEA) 로부터 목사안수 (남,여) 와 선교사 임명 받을 수 있으며 IEA 회원이 될수 있다.
3). 본교는 미국 미조리주정부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대학교이다.
4). 타대학 학점 최대한 인정 편입 가능.

Global Gateway University
www.goggu.us. info@goggu.us

DYNAMICS 다이나믹스
MARTIAL ADRENALINE ZONE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배너
교회배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7)

**엄예선 박사**
(풀러신학대학원 가정상담 및 한국가족학 교수)

3) 신체적 관리

(1)신체적 활동: 일주일에 5회 이상 몸을 활발히 움직이는 운동을 할 것

(2)매일 20분 정도 햇빛 쪼이기.

(3)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생활

(4)수분섭취

(5)목욕

(6)7시간 수면

(7)주 50시간 이내로 일하고 정규적으로 휴가와 수련회를 가질 것(하루, 매주, 매월, 계절, 일년).

(8)신체적 경고에 귀 기울일 것.

4) 정서적 자기 관리

(1) Self-Regulation

하면 이 기술을 사용하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심장 박동 횟수가 치솟지 않고, 사람들이 더 이상 마치 자기들의 삶과 죽음이 달려있는 것처럼 위기에 반응하지 않는다(Gentry, 1999).

(2)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것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만이 남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Anderson(1989)에 의하면 예수님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자기를 사랑하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의미와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

(3)자신의 심리적 상처들을 인정하고 치유할 것.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개인적인 문제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다. Nouwen(1979)의 표현대로 목회자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다. 목회자가 자신의 문제나 상처를 돌보지 않고 남의 문제나 상처만을 돌보려고 할 때 교회 안에는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특히 심한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난 목회자들이 심리적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명 받았다는 확신 하나로 목회의 길을 택했는데, 목회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경우 그들은 치유의 근원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정죄적인 설교를 하기도 하고 윤리적인 문제들에 빠지기도 하여 성도들에게 고통을 준다.

오늘의 교회를 가리켜 고슴도치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치유되지 않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상처들이 가시가 되어서 서로를 찌르고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다. 현재 한국과 이민 교회에서 발견되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많은 갈등은 목회자의 심리적 문제들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목회자는 먼저 자신의 심리적 상처 치유에 주력해야 하다. 그럴 때 참 자아(person)가 개발된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점을 무시하고 타이틀이나 직책으로 정의되는 외형적 자아(Personage, Tournier, 1962) 개발에만 치중하고 있는 현실이다.

1999), 대인관계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Weiser(1994)는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목회자가 그렇지 않은 목회자보다 더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다.

(4)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다시 쓸 것.

Victor Frankl(1968)은 사람이 스스로의 삶의 이야기를 재 집필한다면 어떤 극심한 환경도 감내할 수 있음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즉 그는 고통이 의미와 연결될 때 단순한 고통이 아니고 엄청난 삶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1941-45년까지 3년반 동안 나치 수용소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낼 수 있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트라우마(trauma)로 가득 찬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재 집필한 케이스다. 즉 그는 자신의 삶의 기구한 사건들을 형들의 못된 소행의 결과들로 보지 않고 그 사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로 재해석했다. 즉 그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창45:5).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창45:8)고 말한다.

UCLA. 정신과 교수인 Dan Siegel(2003)은 자신의 이야기를 재 집필한 사람들을 '통합된 이야기를

## 신체적 정서적 관리 함께...목회자 자신 치유부터 먼저
## 목회자로서 높은 직업적 자아상 없으면 리더십 상실

다음은 자기 규제에 대한 Eric Gentry(1999)의 이론이다. 그는 '외상 후 충격' 분야의 세계적인 대가이다.

자기 규제란 어떤 위협적인 상황을 감지했을 때 교감신경의 지나친 자극에서 벗어나서 부교감 신경이 자율신경을 지배하게 함으로써 긴장과 불안과 스트레스의 상태에서 나와서 몸의 긴장을 뺀 평온한 상태로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마음을 집중하는 기술인데 정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많은 정서적 긴장과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온 몸의 긴장을 30초 정도 푸는 기술이다. 특히 골반 근육을 수초동안 꽉 조였다가 힘을 서서히 빼어서 긴장을 이완시키는 운동(pelvic floor muscle relaxation)과 눈을 정면만 보지 말고 시야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최대한으로 넓히는 운동(Widening our vision)을 집중적으로 함이 중요하다.

이 기술은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해야 한다. Gentry에 의

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부정적인 자아상은 자신 없음, 열등의식, 가장된 우월의식, 우유부단, 비현실적이거나 혹독한 자기비판, 자기혐오, 자기 비하를 일으킨다. 자아상이 낮은 목회자는 교인들이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을 즐기므로 helping ministry를 하기 쉽다. 목회자는 개인적인 차원의 긍정적인 자아상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높은 직업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목회자로서의 높은 직업적 자아상이 없는 사람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교인들을 이끌어가야 할 처지에서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다.

목회자가 개인적 차원과 직업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이기 이전에 먼저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이해를 분명히 하고, 치유되어야 할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고, 소명을 분명하게 하고, 목회자로서의 실력을 쌓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의미 있는 가족관계와 인간관계를 개발해야 한다.

목회자들이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들을 스스로 직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 목회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부정적인 면들을 직면했다.

"나는 웨인 오우츠의 그리스도인의 인격 장애와 치유를 읽으면서 내 안에 적대감과 공격의 가면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나로 인해 영적인 학대를 받은 교인들은 없었을까? 나는 내가 왜 이런 성향의 기질을 가지게 되었을까를 많은 시간 묵상을 했다. 오우츠가 그의 책에서 설명한 대로 나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결코 원만하지 못했다."

목회자들이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영성을 개발하는 방법들과 아울러 배우자와의 깊은 대화, 지지집단의 활용, 상담 등이 모두 도움이 되며 이런 방법들을 동시에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영성 개발만으로 심리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특히 심한 정서적 상처들, 심각한 성격적 문제들, 심한 스트레스(Gentry,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그는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합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자신의 자녀와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예측해주는 가장 신빙성 있는 요인이라고 말한다. 그는 삶의 이야기 자체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이라도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통합한 사람에게는 삶의 이야기의 심각성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목회자들은 위기 속의 성도들이 트라우마로 가득 찬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재집필하여 의미와 희망과 사랑이 가득 찬 이야기로 전환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이 돌봄의 목회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먼저 자신의 삶을 재집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옛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다.

이메일:yeasunkim@gmail.com

〈계속〉

## 기/도/칼/럼

#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신다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기도를 하다가 지칠 때가 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부르짖는 기도, 관상기도, 영의 기도…. 모든 기도를 동원해 간구해보지만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것 같아 답답함을 느낀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도 든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가 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지만 마찬가지이다. 죄가 가로막혀서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눈물 뿌려 철저히 회개를 해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러할 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낙심하기가 쉽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기도를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멸시치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안보여도 찬란한 해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당장에 응답이 없어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 구름 너머에 빛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기도하기 전과 이후가 똑 같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레슨하기를 원하신다. 고통 속에서 사랑, 겸손, 인내, 성실, 믿음, 순종을 가르치신다.

욥은 시련 속에서 기도로 인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결말을 보았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시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도로 도와주신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멸시치 않으신다. 예수님을 보라! 사람들은 멸시하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셨다. 기도를 멸시하는 자는 마귀 밖에 없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시102:17).

이메일: bible66@gmail.com

〈15면에서 계속〉

우리 교회들이 경건 및 영성을 위해 교육에 임할 때 현재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피력하기 위해 편의상 지성과 감성의 균형, 그 균형대로의 실천, 그리고 지정의 통합 이렇게 분리했지만 사실은 결국 지성, 감성, 실천이라는 면면들이 분리되지 않은 채, 이 모두가 신앙의 핵심적 요소들임을 인지하고 통합적으로 그리고 동시적으로 교육해야 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바람직한 것은 개인적 경건 및 영적 성숙을 위한 교육의 첫 단계에서부터 지, 정, 의 통합 교육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지적인 부분과 감성적 부분의 균형을 추구하며, 그 다음에 더욱 더 부족했던 실천에 방점을 찍는 교육은, 분명히 현재의 교육에서 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그 나름의 훌륭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애초부터 지, 정, 의의 균형이 잡힌 통합적 교육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피교육자가 어린아이들이건 성인 초신자들이건 그들을 위한 개인적 경건 및 영적 성숙을 위한 교육은 그 첫 단계부터 지정의가 통합된, 즉 지성, 감성, 실천의 측면들이 고르게 강조되고 동시적으로 담보되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역자들이 자신들과 섬기는 교회들의 이제까지의 경건 훈련 및 영성 교육을 되돌아보고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며, 서서히 재정비해 나가며 점차적으로 지정의가 통합된 교육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